

국립국어원 2009-01-33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121-14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 연구책임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서 정 섭(서남대학교)
- 조사 지역 : 전라북도
- 조사 항목 : 남원목기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 구 기 관 :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정희

공동연구원 : 서정섭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민족생활어의 개념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6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사항	
2. 조사 지침	7
2.1. 현장 조사 지침_8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9	
2.3. 올림말 선정 지침_11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4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7
2.1. 제보자_17	
2.2. 조사 기간 및 방법_18	
2.3. 조사 장소_19	
2.4. 조사 내용_19	
2.5. 조사 결과물_19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생애 구술	23
1. 자기 소개	23
2. 제기 이야기	24
3. 목기 제작 기계 이야기	27
4. 바루 이야기	28
5. 바루 제작 이야기	30
6. 목기 공장 이야기	32
7. 칠 공방 이야기	35
8. 목기 교육기관 이야기	43
8.1.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_43	
8.2. 전라공업기술학교 이야기_46	
8.3. 산내중학교 초대 교장 퇴임사_51	
제4장 조사된 어휘	55
1. 남원과 목기	55
2. 목기	56
2.1. 목기 제작 기계_56	
2.2. 목기 제작 과정_58	
2.3. 제기 숫자_63	
2.4. 제기의 명칭과 크기_67	
2.5. 제기 제작 공구_68	
2.5.1. 가리칼	
3. 바루(발우)	71
3.1. 바루의 명칭_71	
3.2. 바루의 숫자와 크기_72	
3.2.1. 4합 바루	
3.3. 바루 제작 과정_74	
3.3.1. 절동	3.3.2. 귀도리
3.3.3. 초가리(초벌깎기)	3.3.4. 재가리(재벌깎기)

3.3.5. 목기가 트다	3.3.6. 틈칸	
3.4. 바루 생산지_79		
4. 옷칠		81
4.1. 옷이란?_81		
4.2. 옷 채취법_81		
4.3. 칠의 정제과정_81		
4.4. 옷칠 과정_82		
4.5. 옷칠 도구_86		
4.5.1. 칠지	4.5.2. 쇠꼬리붓, 인모붓	
4.5.3. 옷이 피어나다	4.5.4. 칠 내다	
4.5.5. 칠사와 목기사		
5. 목공예 교육기관		90
5.1.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_90		
5.1.1. 목공과 졸업생	5.1.2. 당시의 선생님	
5.2. 전라공업기술학교_91		
5.2.1. 졸업생과 교사	5.2.2. 당시의 선생님	
6. 금기사항		93
6.1. 목기는 때를 맞춰 제때 깎아라._93		
6.2. 쇠소리가 나면 제사에 귀신이 안 온다._93		
6.3. 여자, 특히 월경 중인 여자는 옷칠 위를 넘어 다니지 마라._93		
6.4. 옷을랐을 때 빨리 나오려면 5일 동안 씻지 마라._94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97
참고문헌	100
부 록	101
찾아보기	115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개요

1. 조사 개요

1.1. 민족생활어의 개념

인간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며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생활 모형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이다.

민족생활어란 생활과 언어에 민족이란 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민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우선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언어, 문화, 역사 등을 함께 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한다. 즉 생활이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실제 삶과 연관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생활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서, 인식,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적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특정 집단 혹은 민족의 고유한 사고 체계와 문화 체계가 형성·발전한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 사고 체계, 문화 등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미 만들어진 생활양식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한 민족이 살아 온 삶의 모습, 사고체계, 정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민족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생활어의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의 재발견과 조사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

민족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 민족문화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문화도 포함된다.
-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룩한 문화는 한민족 구성원에 의하여 연구 변용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한민족이 우리 강역 안에서 이룩한 문화 외에도 외국으로 일시 진출하거나 항구적

으로 이주하여 이룩한 문화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선사시대의 생활양상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자연 그 자체는 문화가 아니지만 한민족에 의하여 이용되고 의미를 부여한 자취가 있을 때는 한국 민족문화로 다룬다.
- 현대 문화의 양상은 전통 문화와의 연관이 파악되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에서의 독자성 또는 특수성이 보편성과 함께 인정되어야 한국 민족문화이다.
- 민족문화는 민족·강역·역사·자연·생활·사회·사고·언어·예술 등 아홉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 규정은 앞으로 수행할 이 사업의 조사 대상과 영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Sapir Whorf 가설, 언어의 상대주의 이론)에 보면 언어구조나 실제 사용하는 언어형식이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많은 언어 형식을 창조한다. 사용자가 그만큼 사고를 많이 한다는 말이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은 눈, 얼음, 바람을 아주 세분된, 수십 개의 말로 표현한다. 필리핀 민도르의 하우누족은 450종 이상의 동물과 1,500종 이상의 식물을 구분한다. 실제 공인된 공식 도감의 분류보다 400여 종이 더 많다.

어떤 언어 사용자의 죽음은 그가 가진 독특한 생활어도 함께 사라짐을 의미한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사망할 때마다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지고,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지식과 지혜가 전수되는 아프리카의 문화 전통에서 오래도록 살아 온 한 노인은 그 사람 자체가 박물관이고 도서관이었다(강신표, 인제대).

이러한 관점은 조사 대상과 조사 영역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누구를 조사해야 하고,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이 관점을 토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생활어란 한국 민족이 그들의 문화 속에 담고 있는 생활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생활어 조사란 바로 그러한 한국 민족문화 모형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어휘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한 민족 내에서 사용한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와 행동양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과 연계된 생활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음운

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 의미, 용례, 담화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이 반영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면서 그에 합당한 어휘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어휘 부족 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언어의 의미가 더 확대되거나 기존 어휘가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어휘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나 관념의 형성,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새말이나 기존 의미의 변화, 문화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휘이므로 어휘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양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 성, 지역, 연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생활어의 음성, 어휘, 의미, 용례, 담론, 사진, 동영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사고력 증진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광범위한 민족생활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와 한민족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행동 양식의 역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 구조와 활동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유지, 발전 되어온 국어의 어휘, 의미, 용례, 소통양식 등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 정리, 보관, 활용에 관해 연구를 한다.

한 민족의 삶 속에 내재한 생생한 생활어를 조사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생활 자료를 보존할 수 있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민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올바른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발전의 가시적 성과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소멸·쇠퇴하는 반면 다른 많은 직업들이 창출됨에 따라 국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생활양식이 바뀌고 있다.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전통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민족생활어를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 어휘, 의미, 용례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탈근대 혹은 지식·정보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세기 민족생활어의 조사대상이 되는 민중들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대개 고령자일 경우가 많다. 민족생활어 조사의 긴급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제기된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를 살면서 일상의 온갖 생활어를 생생히 사용해 왔던 고령자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생활어를 긴급하게 발굴·조사하지 않으면 참으로 귀중한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생활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구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노년세대들의 소외의식을 줄이고 그들의 자존감도 회복시킨다. 또한 소외계층의 생활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생활어도 조사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소외감을 해소한다. 아울러 당대의 고령층과 소외계층 사람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생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한국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3.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적용하는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이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이며,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의 융통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1.3.1. 조사의 의의

- 행위자(제보자) 관점에서 이해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행위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 조사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 의식적 행위와 실제적 행위 모두 포착하고 규명해야 한다.
- 조사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탐색조사(Pilot Study)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조사원의 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경험하면서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참여관찰, 인터뷰,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담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동원될 수 있고, 이것은 조사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조사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임기응변과 융통성이다.

1.3.3. 조사 시 고려사항

- 사례가 지닌 역사적 조건이나 외부 상황적 연결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

사 대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사례가 지닌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조사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의례·의생활·식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토속어(입말 구술 자료)를 채록하기 위한 기층생활어 조사와 산업 현장이나 생업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직업관련어 조사로 나뉜다.

- 기층생활어 조사 :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 채록
- 직업관련어 조사 : 언어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업과 연관된 생활환경, 제례의식, 민간신앙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특수 어휘 채록¹⁾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층생활어 조사는 앞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표준어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 어휘와 직접 대응하지 않거나, 그 외 기존의 사전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층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 항목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격화된 조사방식으로 생활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질문지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방법론을 활용하며, 구술체 자료(입말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에 오르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입말 구술 자료와 어휘 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수집한다. 아래와 같은 분야의 어휘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질문 조사방식으로 조사·수집 정리한다.

가) 입말 구술 자료 : 일생의례, 생업활동,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세시풍속, 민속놀이, 질병과 민간요법, 특수 직업 어휘농업, 어업, 임업, 광업, 목축업) 등.

나) 어휘 자료 : 민족 고유 전통문화 어휘, 직업어 자료

2.1. 현장 조사 지침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토속생활어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되 같은 대상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만약 조사된 어휘가 전형적인 특징(의미)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어휘 항목으로 선정하고, 음운론적 변종들은 어휘 항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의 용례는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사진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명칭은 질문지의 그림에 직접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접사 촬영하여 제출한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들은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어휘는 인간문화재나 기능 보유자를 찾아가 조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조사 분야 중에서 지리적 변종이 예상되는 어휘들은 지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 선정
- 지리적 변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지역 선정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물에 관한 생활어를 잘 아는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체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어 조사는 조사 대상 어휘의 특성에 따라 제보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 기준을 따르되, 조사 대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한다.
- 직업 관련 제보자의 경우 조사 대상 직업을 10년 이상 지속한,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관록 있는 제보자를 선정한다. 단 조상 때부터 동일 직업을 가지고 이어온 제보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제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주변에 동일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어 구별을 위해 또 다른 제보자로 선정하여 비교한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깐장 → 양념간장, 서울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니’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니’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니’가 [-]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네’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해성 → 해성
- ⑨ 단모음 ‘네’나 ‘히’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네’이면 ‘네’, ‘히’이면 ‘히’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니’나 ‘기’가 [ɕi]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니’이면 ‘니’, ‘기’이면 ‘기’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스’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랍 → 사랍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ㅈ, ㅊ’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티(밭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듬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흥년)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ㅈ’와 ‘ㅊ’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찌나물(쓴나물), 찌다(쓰다, 苦)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ㅏ>ㅗ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ㅓ>ㅡ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ㅔ>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해푸다)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ㅡ’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ㅗ>ㅏ’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팔(팔), 뵈다(뵈다)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ㅏ>ㅗ’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ㅏ’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불(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깁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흠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ㅇ-첨가 : 해구다>헹구다, 바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벥이다(배우다)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ㅏ>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흘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ㄹ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ㅣ>ㅔ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쎄(할머니), 개비>게베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ㄹ. ㄴ>리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괴랑(도랑), 고>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ㄱ. 리>래 : 괴기>계기, 괴비>계비(식물), 외우다>에우다, 뵈시다>메시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ㄱ>기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둑>귓둑,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ㅅ. 내>나 : 꿩이>꿩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께>꾀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ㄱ. ㄷ>ㄱ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ㄷ>ㄴ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ㄴ>ㄷ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점(버짐)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ㄹ. ㄱ>ㄷ : 주직>주벽, 웅구력대기>웅구렵대기(미꾸라지)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ㄱ.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꼇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꼇사리(송사리), 등

㉞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ㄷ. ㄱ>ㅎ : 아곱>아홉, 똥>똥, 숙>숯(雄), 군지>훈지(그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양기다, 암캐>양캐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⑰ ‘ㅡ’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ㄱ다>앙그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
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㉞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⑲ ‘ㄹ’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풀~소불(부추), 장팍~장꼬방(장독
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㉞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몰개~모래, 생강~새양, 시

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①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펑풍(병풍), 팜나(밤낮), 폴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②②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웃(웃), 빗(빗)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②③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굶다(견다), 짊다(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2.4. 뜻풀이 지침

2.4.1. 기본 원칙

- ① 순환적인 뜻풀이를 피해야 하며 뜻풀이에 표제어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고리타분하다『형』 고리고 타분하다.
- ② 한 단어로 뜻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뜻풀이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여 뜻풀이한다.
- ④ 가능하면 문학작품이나 입말 자료 등에서 다양한 용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4.2. 뜻풀이 형식

- ① 정의항은 기본적으로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른다. 이때 명사는 명사(형)로, 동사나 형용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부사와 관형사는 각각 그에 맞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뜻풀이한다.

예) 자배기01 #5 『명』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종차

└>유개념

- ②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부가 뜻풀이를 정의항 다음에 제시한다. 이때 ‘짧은 정의+설명’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설명’ 부분은 반드시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형식으로 한다.

예) 간01 #5 『명』 『1』 음식물에 짭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③ 생활어 및 직업어에서 조사된 모든 올림말은 뜻풀이를 한다.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풍부한 지리산에 실상사가 자리하여 스님이 사용하는 그릇의 수요가 많아 목기 제작과 옷칠이 크게 발전하였다. 남원은 목기와 제기의 제작 기술이 뛰어난 고장이다. 일제강점기에 전라공업기술학교에 목공과가 생기면서 목기와 옷칠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옷칠은 무공해 자연칠로 2~3년이 지나면 색이 더욱 살아나고 방수·살균효과도 크다. 현대는 목기의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플라스틱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그 명맥을 찾기 어렵다.

목공예는 목재를 이용하여 구조물·기물 등을 만드는 기예이다. 목재는 금속이나 돌에 비하여 다루기가 쉬우므로 이를 이용한 공예도 다양하여 크게는 건축에서부터 적게는 퇴침, 목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분류에 따르면 목공예품은 인물상, 동물상, 목기 및 용기, 장신구, 탈, 가면, 액자, 벽걸이, 지팡이, 파이프, 스탠드, 불상, 불단, 고전가구, 민속악기(거문고, 가야금 등), 바둑판, 다식판, 상패, 기타 장식품 소품 등이다.

이 중 목기의 종류는 각종 생활 용기, 절긋공이, 절구, 발화기(發火器) 등의 집기, 팽이·호미 등의 농기구, 배, 활, 널[棺], 사다리 등 건축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목기 중 요즘은 남원목기라고 하여 특별히 나무로 만든 그릇인 나무 그릇을 목기로 한정하여 쓰고 있다. 목기 종류에도 목판, 함지, 귀함지, 찬합, 구절판 등이 있으며, 사찰에서 승려들이 공양할 때 쓰는 발우도 여기에 속한다. 우리 조상들은 가구를 만들 때에 쇠못을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서로 짜 맞추었다. 표면에 은은한 옷칠을 하거나 자개와 금속 조각으로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전라북도 남원시의 목기인 제기와 바루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 제작 기계와 제지 제작 과정과 공구, 바루의 제작 과정과 공구, 옷칠의 과정과 도구에 관한 어휘, 목기 교육기관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연번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1	제기, 바루	김을생	남	74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405	전북무형문화재 13호 옷칠장
2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 전라공업기술 학교	서기태	남	74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46	
3	제기	김인철	남	60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405	



[사진 1] 김을생(좌)



[사진 2] 김을생



[사진 3] 서기태



[사진 4] 서정구(칠 제보자)

김을생은 1935년 생으로 일제 때 산내소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그 뒤 소학교를 졸업하고 남원읍으로 나가 남원중학교를 다녔는데, 1950년 6월, 2학년 때 6.25를 당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 산내로 돌아왔다. 1953년 휴전 이후 복학을 원했지만, 당시 지리산 일대는 이른바 빨갱이들이 마을에 내려와 양식과 가축을 약탈하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다시 남원읍으로 나가서 공부할 형편이 못 되었다. 그러던 중 산내면 소재의 전라공업기술학교에 입학하여 목기 제작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7년에 간부 후보생에 합격하여 군생활을 대위로 마쳤다. 군 제대 후 마을에 전해오던 옷칠가업을 전수하여 실상사 맞은편에 금호공예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1980년 전북산업디자인 은상을 비롯하여 1984년 전북공예품경진대회 입선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으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옷칠장 제 13호이다.

서기태는 산내소학교와 전라공업기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중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였다. 전라공업기술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와 전라공업기술학교 개교와 목공과 교육, 산내중학교로 전환 과정 등 목공예 교육기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2.2. 조사 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문헌 조사와 면접 조사 방법을 병행해 목기와 제기 등에 관한 자료, 생애구술 자료를 조사한다.

연번	세부 추진 계획(월, 일)	비고
1	문헌조사(6.1.~7.18.)	
2	목기에 관한 현장조사(7.19~7.31.)	
3	목기의 제작과장 현장조사(8.1.~8.9.)	
4	바루의 제작과정 현장조사(8.10.~8.23)	
5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와 전라공업기술학교 현장조사(8.24.~9.13.)	
6	어휘 정리, 생애 구술 자료 전사(9.14.~9.30.)	
7	보고서 작성(10.1~10.30.)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김을생과 서기태가 남원목기와 목기 교육기관에 대해 설명할 때, 조사자는 준비한 질문지 항목은 물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지의 하위 항목이나 제작과정과 제작도구에 관

한 용어도 조사하였다.

2.3. 조사 장소

김을생 제보자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405에서, 서기태 제보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06번지에서 면담 조사하였다.

2.4. 조사 내용

이 조사에서는 주제를 남원목기인 제기와 바루의 제작 과정과 제작 도구, 옷칠 과정과 옷칠 도구에 대한 어휘와 목기 교육기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	세부 조사 항목
남원목기란?	목기 관련 어휘 조사
제기 만드는 법	제기의 재료와 만드는 법
바루 만드는 방법	바루의 재료와 만드는 법
제작도구	목기(제기, 바루) 제작도구
옷칠 과정	옷칠 관련 어휘와 방법
제기 관련 민속문화	제기와 바루에 관한 민속문화

2.5. 조사 결과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제보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일을 하게 된 동기)는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남원목기의 조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남원목기		168	120	3/1 ²⁾	168	175	2

2) 제보자의 구술 자료는 3개인데 전사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다.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생애 구술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생애 구술

1. 자기 소개

@ 출생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1 본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신봉했던지라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에 매동 뒤의 서진암에서 부처님에게 자주 기도를 드리며 아들을 점지해 주기를 소망했는데, 내가 세상에 나온 뒤 어머니는 ‘너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낳은 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 내가 성장하여 스님들이 쓰시는 바루의 제작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것도 어머니의 말씀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일이며.

@ 산내가 어떤 고장이죠?

#1 내 고향 산내는 산세가 웅협하고 곳곳의 골짜기가 구절양장이제.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지리산 자락의 실상사를 마주하고 있는 백일리는 자고로 경상도 땅 마천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자 뱀사골의 초입이며. 역사적으로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마다 내 고향 산내는 산 넘어 사는 사람들의 피난처였어. 내가 태어날 당시의 역사적 사건은 아는 게 없소만, 민족사의 최대 비극이라 할 6.25 동란 시기에 지리산 일대에서 벌어진 좌익과 우익의 갈등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도저히 잊을 수 없지. 원래 산내는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마다 외지인들이 숨어들어와 난을 피한 곳으로 유명하다고 해.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조상은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 산내에서 꼭 사셨어요?

#1 10촌 미만의 친족들이 보성에 일부 살고 있고, 6대조 할아버지 후손들은 곡성에 살고 있지만 사실 왕래는 거의 없는 실정이야. 산내로 이주한 이래 퍼진 직계 후손들이 나와 동생의 자손들일 뿐이야. 몇 년 전 70만원을 들여 내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족보를 새로 만들었어. 내 가업이 길이 이어지고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새 족보에 담은 거야. 증조부(김변문)께서 두 아들을 두셨는데 내 조부(김선이)가 큰아들이야. 조부의 동생은 딸만 둘을 두었으니 작은할아버지의 대(代)는 끊긴 셈이지. 조부

께서는 선친(김원달) 한 명만을 두었고, 선친께서는 본인과 내 동생(김영근), 아들 둘을 낳았어. 나는 아들(김연수) 하나에 딸 셋을 두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은 손(孫)이 귀한 편이야. 산내로 이주한 이래 자손이 많이 퍼지지 못했어.

@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6.25 동란 때 뱀사골에 은거하고 있던 이현상의 빨치산 부대가 산내 지서를 습격한 일이 생각나. 치열한 총격전 속에 군경은 달아나고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비극이었어. 당시는 주민 모두 전쟁과 기아의 공포에 떨었지만, 산내를 관통하는 만수천의 수정처럼 맑은 물에서 꺾지, 쏘가리, 무래무지 등 온갖 물고기들을 친구들과 어울려 잡던 아름다운 추억도 떠올라.

@ 결혼은 언제 했어요?

#1 어머니(지옥달)는 본관이 청주 지씨(池)이고 산내면과 이웃한 경상도 땅 마천에서 대대로 살았어. 산내(전라도)와 마천(경상도)은 도는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사실상 한 마을이나 다름이 없었어. 옛날에 산내는 같은 남원군인 인월, 아영보다 오히려 마천이 훨씬 가까웠고 다니기가 편했기 때문에 마천과 혼인, 유통이 빈번했던 거야. 내 집사람(서순자)은 본관이 달성 서씨(徐氏)로 경상도 함양이 고향이야. 산내에 대대로 살았던면민들은 대개 지리산권 일대의 경상도 지역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경우가 많아. 지금처럼 무슨 지역 감정이라는 게 없었어. 군에 있을 때 아버님이 처녀 사진을 들고 찾아와 결혼을 강권했다. 1962년에 연애 한번 못하고 함양읍에서 결혼했어.

2. 제기 이야기

@ 목기는 언제부터 깎기 시작했어요?

#1 막상 예편하고 보니까 육군 대위 출신을 특별히 반겨주는 곳이 없었어. 그래서 일단 고향으로 돌아와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지. 그런데 말이야,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는 데 소득이 영 시원치 않았어. 이런 첩첩산중에서 30마지기 농사면 영농 규모가 꽤 큰 편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가난했어. 부모님과 처 그리고 1남 3녀를 부양해야 하는 나의 어깨는 정말로 무거웠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업이 절실히 필요했어. 하루는 예전에 익혔던 목기 제작일이 떠오르는 거야. 물론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영수·永守), 아버지(원달·元達)에 이르기까지 목기 만드는 일을 가업으로 삼았어.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더

불어 목기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어. 시장에 양은그릇이 넘치고 철제 제품이 나날이 쏟아져 나오니, 나무로 만든 제품은 더 이상 설 땅이 없었던 거야. 이런 판국에 목기에 관심을 갖고 가업을 계승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 받기 일쑤였지.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어. 먼저 남원 산내면에는 통일신라흥덕왕 3년(828)에 홍척에 의해 창건된 대가람 실상사가 있어. 실상사는 신라 말엽 고려 초기에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로서 수많은 선승과 고승을 배출한 선종의 본산이지. 한때는 수천 명의 스님들이 참선하고 공부하는 큰 절이었다고 해. 스님들은 나무로 만든 바루를 식기로 사용하는데, 은행나무로 바루를 만들어 옷칠하는 기법은 원래 실상사 스님들의 비전(秘傳)이었지. 우리 마을 백일리는 실상사와 더불어 생겼던 까닭에 실상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스님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를 깎아 바루를 만드는 방법과 옷칠 기법을 전해 주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자연히 지리산 일대에서 생산한 풍부한 다양한 목재로 바루 등의 불교 용품, 제기 등을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지. 그러나 플라스틱 그릇이 한창 성했을 무렵 목기를 만들던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점차 마을을 떠났소. 돈벌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나는 바루를 만들어 스님에게 공양하는 일도 평생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울러 지리산은 임산물의 보고이므로, 내 고향 산내면은 임산물과 관련이 있는 목기 산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목기 제작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야. 내 나이 3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목기를 제작하기 시작했어. 목기는 정밀한 공예 기술도 중요하지만 옷칠이 그 생명력이야. 천연 옷칠은 그 침투력이 강해 색깔이 변하지 않으며, 쭈미 슬지 않고 냄새가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목기는 어떻게 깎죠?

#1 목기 제작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단계는 원목 절단이야. 목기의 원자재인 물푸레나무, 박달, 노각, 괴목, 오리목 등 슬지 않도록 가을에 벌채하여 6-7개월 이상 건조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해서 적당한 크기의 재목을 준비해야 돼. 두 번째 단계는 초벌깎기야. 일단 절단한 재목을 용기의 형태를 짐작하여 끝갈로 깎은 다음 습도가 높지 않은 음지에서 약 150일 이상 건조해야 돼. 세 번째 단계는 재벌깎기인데 초벌 깎기 후 잘 건조된 나무토막을 틀에 고정하고 발 또는 동력으로 돌리면서 적당한 부분에 끌을 갖다 대면 가리밥이 나오면서 허리가 날씬한 목기가 나오지. 이 때 목기의 거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포질 등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반복하여 완벽한 형태를 얻게 되는 거야. 네 번째 단계는 칠하기야. 옷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 생칠, 화칠 그리고 다양한 색상으로 정제 가공되는 옷칠은 재벌깎기까지의 공정에서 완성된 백기를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측면이 있어. 그리고 방습, 방수, 광택을 위한 칠하기 과정으로 초벌칠과 6-10회의 재벌칠로 나뉘고, 살충력과

마모 방지에 강한 옷칠과 카슈칠 등 2종으로 구별되지. 특히 옷칠의 경우 적당한 온습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돼. 마지막 단계가 음건이여. 옷칠 및 카슈칠이 목기에 적절하게 침투하여 은은한 광택을 얻기 위한 목기의 완성 단계로 약 10일간 음건 과정을 끝으로 고품질의 목기를 선별하여 제품으로 출하하는 것이여.

@ 목기 깎는 거요, 그거 제기 그릇이 몇 개인가요?

#1 제기는 보통 옛날에는 32개, 42개 그랬어. 흘제기, 접제기 그랬거든. 42개는 접제기, 32개는 흘제기 그랬거든. 그런데 너무 또 많고, 너무 적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37피로 해.

@ 접제기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것인가요?

#1 그렇지. 탕기가 보통 기준이 3칸디, 어떤 사람은 가진 집은 탕기가 다섯 개 허기도 현디, 2개가 추가 된 거 아니여. 또 잔도 두 벌 여준디 한볼 더 여주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접시가 더 있을 수가 있어. 접시가 보통 22-3개 되는데 접제기가 되면 한 서너개 더 옹고.

@ 탕 그릇하고 잔, 접시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군요.

#1 그렇지. 그러니까 다섯 개 차이가 나지. 지금하고는 10개 차이가 나지. 접제기는 42개, 흘제기는 32개니까 10개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탕기 2개, 접시가 한 여섯 개 정도 차이가 나. 그리고 잔하고 잔 받침이 한 두 개 차이가 나. 그래서 10개 차이가 나.

@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것이 있어요?

#1 그런 것은 없어. 아,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용도별로 틀리지. 정사각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편틀, 이것은 떡 담는 그릇이란 뜻이고,

@ 편틀은 보통 말할 때도 편틀이라고 합니까?

#1 하아, 그렇지. 그냥 편틀이라고 그래. 그리고 직사각형은 고기틀이라고 그래. 조깨 큰 것이 4개 있는데 고거는 사과, 배 이런 과일을 담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과기라고 그러지. 그담에 적틀이라고 그러지. 적기이지. 일반적으로 부침개 부쳐가지고 쪽 놓는 것이제. 또 작은 거는 소접시 그렇게 말하거든. 은행같은 거, 짜간씩헌 과일같은 거, 대추, 은행, 추자, 꽃감 같은 거 놓는 거여. 큰 거 놓을 수가 없으니까. 고론 거는 소접시에 그냥 놓고. 유과 같은 것도 놓고 그래.

3. 목기 제작 기계 이야기

@ 목기를 깎는 기계가 옛날 것하고, 지금 기계는 다르죠?

#1 옛날에 기술학교 목공과에서 허는 기계는 발로 했어. 전기가 없다보니까. 침에는 우리 조상들이 현 기계는 목틀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잡아 땡겼어.

@ 그 목틀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1 거 요로케(나무로 만든 새총의 가지처럼 벌어진 나무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큰 통나무를 올려놓는다) 나무로 해가지고 원동력이 없으니까 요렇게까지는 바닥나무에 올려 놓을 수는 있잖아? 그러면 나무를 두 줄로 감아. 줄을 이쪽에서 잡아땡기면 나무가 요리 돌고, 저쪽에서 잡아땡기면 저리 돌고 그러지. 그런 것이 원시적인 것이지. 또 옛날에는 짜구질을 했어. 짜구질을. 짜구질을 해가지고는 능률이 안 오르잖아. 목기를 따듬고 그래야 허니까.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목틀이지. 고것이 시초에 인자 목기틀이라고 그래. 그 답에 인자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본개로 능률이 안 오를 것 같거든. 그런게 줄을 잡아당기던 것을 발로 밟게 만들었어. 한 사람이 발로 밟아 가면서 깎는 것을 만들었어. 발 족자해서 족틀 그러지. 이게 발전된 것이지. 전라공업기술학교 목공과는 발로 허는 족틀 이걸로 했어. 그 답에 인자, 여기가 바로 목기의 본 고장인데, 어느 가정에서는 이 발로흐는 기계로 허다가 인자 하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물레방아가 있었어. 물레방아의 원동력을 돌려갖고 했었어. 원동력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했었어. 고 거시 지금 기계화된 발전과정이고, 전기가 들어온 바람에 기계로 허지. 지금은 남원같은 디는 기계로 허지만 우리는 문화쟁개 그냥 손으로 깎고 있고, 일부 단순한 목기는 그냥 기계로 허고, 목기 제기같은 것은 단순히잖아, 그런 것은 그냥 기계로 허고, 아까 바루겔은 것은 어렵잖아? 바루같이 어려운 것은 손으로 깎아야 허고.

@ 목기 기계에서 발로 밟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3 옛날에 우리가 들은 말은 목틀에서 발로 밟는 부분을 족딱기라고 했어.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족딱기라고만 알고 썼어요.

#1 족딱기는 족작기(足作機)인데 말을 족딱기라고 한 것이여.

@ 그러면 목기 기계에서 줄을 매달아 당기는데 그 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3 목줄이라고 흔히 옛날에 지리산에는 피나무가 많았잖아요? 그런게 피나무 껍떡을 벗겨갖고 했어요. 옛날에 큰아버지가 흔 것을 보기는 봤지요. 혼자 누워서 줄을 잡아 땡겼어. 밑에는 돌이서 누울 수가 없었지.

@ 목기 제작과정은 어떻게 되죠?

#1 하나의 목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돼요. 먼저 용도에 맞는 나무를 골라야 하는데, 바루는 은행나무, 제기는 물푸레나무나 오리나무, 물병과 밥통 찬합은 오리나무, 밥그릇은 물푸레나무로 만들어. 나무를 자르고 초갈이, 재갈이는 기계로 하지만, 5푼 칼로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나, 사포질, 생옷칠 등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해. 초갈이 한 뒤 6개월간 말리거나 쥔 후에 재갈이를 하고, 그 연후에는 일일이 그 흠을 잡아내는 곡서의 과정을 통해 본살처럼 만든 다음 옷칠을 하지. 칠을 하고 말리고 또 칠을 하고 말리는 과정이 7-8번 되풀이 된 연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목기가 완성된단 말이야. 어떤 것은 10번 이상 칠해야 하는 것도 있지. 목기 한 개를 만드는 데에는 대략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바루는 제일 큰 것이 밥을 담는 ‘어시바루’, 그 다음이 ‘국바루’, 설거지물을 받아두는 ‘천수바루’, 제일 작은 네 번째 바루가 ‘반찬바루’로 나뉘는데, 그는 여기에 하나를 보태 ‘5조바루’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 다섯 개를 포개면 딱 맞아야 하므로 바루 제작이 어렵다. 또 바루는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과 공력으로 만든다.

4. 바루 이야기

@ 바루는 어떻게 만들죠?

#1 바루도 어느 정도는 기계로, 그런데 일단은 나무가 잘 말라야 안 허 짓는가? 우리 창고같은 디에 나무가 짝 찼거던. 그거는 나무를 말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 기계로 허 드라도 일단 초가리라고 그래. 초가리만 해놔. 초가리. 그러면 재가리는 아직 기계로 못해. 아직 안 맞아. 재가리를 헐려면 나무가 말라야 허고 가다도 안 나고 기술이 부족 해가지고. 그래 재가리는, 묵은가리헐 때는 말리가지고 인자 손으로 다해. 우리 곁은 경우는 그냥 기술자가 많이 있는게 처음도 수작업을 허고, 재가리도 수작업을 허고 그런게 능률이 안 올라.

@ 전라공업기술학교 있을 때는 발틀 기계는 몇 개나 있었어요?

#1 그때가 한 열 개 있었지.

@ 아, 한 열 개 정도 있었어요?

#1 그때 전체 학년이 18명, 30명 이쪽저쪽인데, 한 50명 미만이었어.

@ 그렇지요.

#1 항아, 50명 미만인데 기냥 실습한다면 1시간씩 교대해서 해보고 그랬제. (기술자로) 거기 나갈라고 허는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지만은, 기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냥 시간 때우기로(허- 허-) 했지 않냐 허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어.

@ 혹시 이거 그림이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이거 옛날에 발로 꺾는 기계 그림인데요.

#1 (안경을 찾아서 쓰고) 아까 거 손으로 돌려서 꺾는 것이구만. 이것은 더 옛날 것인가봐.

@ 이게 아주 옛날 조선시대 때 그림이거든요.

#1 손으로 꺾는 것을 만들든 거인가봐. 끈으로 잡아당겨 돌리는 것이 조금 올라갔는가봐. 지금 이분이 꺾잖아? 지금은 앞에서 꺾거든. 여기는 뒤에서 꺾잖아? 근디 그때도 (기계를) 개발을 했구만. 요고는 발로 흐고 있거던. 제일 원시적인 것은 돌이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여.

@ 여기는 아마 돌이 줄을 당기는 것인가봐요.

#1 그러지, 여기 여기로 해가지고잉, 이것이 원시적인 것이라. 그래서 한 단계 나간 것이 요것이라.

@ 실제로 이런 기계는 사용을 안 해보시고 말만 들으신 것이지요?

#1 아, 물론 그렇지. 우리가 어릴 때는 일본 애들이 공업이 발전되어서 좋은 기계를 만들어 왔더라고.

5. 바루 제작 이야기

@ 바루 깎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1 바루는 인자 은행나무나 은사시나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허는디, 그것도 똑같애. 보통 이런 나무는 선질이라고 허거던 똑 똑 똑 끊어. 판자로 켜는 것은 눈질이라고 허고, 그런디 그거이(눈질)이 안 갈라지고 좋은 거라. 그런개 바루때 같은 거는 물을 담구니까, 물을 담구고 그러니까 선질로 허는 것이 아니라 눈질로 해야돼. 판자를 키갖고. 그 래갖고 그거를 바짝 말려. 그거를 한 일년 말리면은 인자 터질 거는 다 터지고 그런 답에 재갈이를 허는 거라. 그래서 (크기에 맞게) 맞춰 너면 돼.

@ 그러면 원래 나무통 하나에서 바루를 여러 개 크고 작은 것을 만드나요?

#1 아니, 그렇게는 안 돼고, 나무를 한 차를 사면은 나무가 작은 것도 나오고(큰 것도 나오고) 층층이 나올 것인 아닌가? 그래서 만드는 것이지.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 하게 많이 주문이 들어온개, 막 계속 말려야 되니까, (나무가)한 차가 들어오면 작으 나 크나 무조건 깎아. 그러면 그것은 깎는 사람 채금(책임)이여. 깎는 사람이 추려가지고, 몇 센티 몇 센티 추려가지고 4합을 깎고, 아까 그러 것(10합 등)을 깎고 그래. 그렇게 돼 있어. 원칙은 경제적으로 흘러면 딱딱 규격을 맞춰서 1볼 2볼 깎아야 흐지만 그 령 게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대개 고로케 해 왔어. 40년간.

@ 그러면 바루의 그릇 숫자가 몇 개 몇 개씩 있는가요?

#1 본래 인자, 스님들이 쓰는 바루의 기본은 4개라. 4합으로 해 그냥. 그리고 조개 올라 와서 5합으로 흐는 것인디, 스님들이 반찬을 4합으로 흐면 딱 맞는디, 반찬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가 먹기가 좀 곤란해서 고추장을 더 먹는다든지 해서 별미가 있을 것이 아니것어? 자기 사찰에서. 그것을 담아놓고 묵기 위해서 5합을 주문허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말차라고 있었어. 차. 차 그릇을 허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4합, 5합인데 아까 10합이네 15합이네 흐는 것은 스님들이 산중에 들어갈 경우에, 공부하려 갈 때 살림은 한 개도 안 가져가고 바루 거 하나만 가져가면은 거기에 밥을 다 묵을 수 있고 또 도 반이 와도 거기에 밥을 다 묵을 수 있으니까 한 개씩 허고. 또 작품으로 소장하려고 흐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은사의 제사를 지낼라고 흘 때 그 하나갖고 제사를 다 지내. 우리는 전국적으로 흔개. 손으로 이거 깎고 있는개 안돼. 직원이 한 20명 돼. 묵고 노 느니 그냥 내 용돈 벌어서 묵고 쓴다 이거제. (돈벌이가) 안돼. 기업이라고 흘 수도 없 고, 이거시 문화재청에 문화재가 되면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개 100만원씩도 흐고 그런

디, 너무 비싸뿌리면 장사가 안 돼잖애? 그러면 지금은 너무 비싸도 안 사가거던. 그런 개 지금 같은면 한달에 한 30벌 팔 것 같은면 문화재가 되면 3벌만 팔아도 밥 묵고 살아. 밥 묵고 살 수 있는개 작품을 만들어야제.

@ 전에는 바루를 한달이면 몇 개 정도 팔았습니까?

#1 지금?

@ 아니요, 예전에.

#1 예전에 잘 팔릴 때는 한달에 한 100여벌 팔렸지. 전국적인개. 지금은 한 50벌 정도 팔리지. 그래도 잘 팔려려. 그런디 저것이 잘 못 만들어. 복잡해. 맨들지를 못해. 남원 시내에 목공예가 많지만은 바루 만드는 데는 없어. 못 만들어. 왜냐하면 잘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기술자들이 고도로 기능을 요허거든.

@ 얇게 만들어야 하나까요?

#1 그렇지. 또 고가로 팔리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칠 다해가지고 한 벌에 한 15만원 허는디. 그것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4합짜리 한 벌에. 예전에는 한 50벌, 100벌 팔면 그래도 그때는 인건비도 싸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제우 용돈 벌어 쓰고 그래.

@ 스님들은 바루를 한 벌 준비하면 몇 년씩이나 쓰니까?

#1 펍생 씨. 의사 가발을 주그 스님을, 은사라고 해. 서병재 교장 선생님이 선암사 선생님이로 계실 때 그래도 많이 소개해줬어. 거게서 많이 팔았어. 선생님이로 계실 때. 그러면 한 벌을 사.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자기 상좌가 생기면 또 냉기조(넘겨줘). 그런 제도로 때문에. 목기가 망가져야 팔린디 안 팔려. 그런개 애로가 많아. 그리고 수리해가고 그래. 그래도 인자 불황은 안 타고.

@ 수리는 어떻게 해요?

#1 흠이 있었 때울 데가 있으면 때워주기도 허고, 바까주기도 허고, 칠해주기도 허고 그래. 인자 해주면 복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전국의 스님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제. 거의 다 알제. 자기 밥그릇을 해가니까.

@ 직접 이렇게 안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한 5년 이짝저짝이라. 시달리는 것을 생각하면 하기 싫더라고.

@ 그러시죠.

#1 인자 밑에 상좌, 제자들을 다 갈쳐놔어. 아, 나이가 75살이나 돼서 머 욕심이 있어서.

6. 목기 공장 이야기

@ 이제 공장에 가서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 제기를 다 만들어서.

#1 그렇지, 선별하는 곳이지. 좋은 것 싸고, 보내는 곳이지.

@ 여기 이 건물은 옛날 학교 그대로이네요.

#1 자네는 기술중학교 졸업 안 했지?

@ 저는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3년까지만 다니고 남원 시내로 나갔지요.

#1 아, 그렇지. 아버지 따라서 갔제. 이것이 옛날에 실습장이었어. 아, 아니. 교실이었어. 교실. 그 당시 교실이었어.(지금 선별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을 가리킴). 그 때는 나무로 되었드만. 그래서 낡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실습장이었어.(지금 목기를 깎는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을 가리킴). 여기는 교무실, 교무실 왼쪽은 칠을 허던 곳이라. 교무실 왼쪽은 교실이었고, 그 옆은 내가 새로 달아냈고. 여기는 교실. 칸을 쪼그만씩 갈라갖고 3학년, 학년들이 썼어.

@ 예전의 기술학교의 건물이나 자리는 그대로 있구만요.

#1 저거하고 이거 두 개는 그대로라(예전의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가리킴).

@ 그러면 실제로 목기를 깎는 것은 어디에서 깎아요?

#1 깎는 것은 저 사람이 깎는디 지금 이 사람이 절동을 해. 절동. 한번 돌리 봐. 우에 덮어 놓으면 안 갈라지지.

@ 여기는 저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난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원목 나무를 저렇

게 자르는 것을 뭐라고 해요?

#1 절동. 꿇을 절, 나무 동.

@ 절동한 다음에 나무 옆을 자르는 것은 뭐라고 해요.

#1 원목 다듬. 원목 다듬이라고 해. 원목을 이런 형태로 다듬는 것을 귀도리흔다고 해. 귀도리.

@ 이것은 귀도리한 다음에 초가리를 한 것이죠?

#1 그러지. 초가리.

이제 부가가치를 팍 올려야 돼.

@ 그런데 이 공구들 이름은 어떻게 돼요?

#1 공구는 인자, 칼. 이런 것을 봐. 이런 깎는 칼을 가리칼이라고 해. 가리칼. 여그 많이 있네.

@ 이 가리칼은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1 응, 있는데 옥칼이 있고, 버든칼이 있고, 인자 매칼이 있고.

@ 아, 잠깐만요, 이것은?

#1 그것은 보통 칼이고.

@ 이 칼은 끝이 조금 오그라졌어요.

#1 그것은 옥칼, 옥칼, 초가리칼이라고 그래. 대개 초가리는 대동소이해. 접때 가면 인자 가리칼도 있어. 저쪽 깎는 거.

@ 이 초가리칼은 크기는 다 똑 같은 거예요?

#1 그렇제. 어이(기술자를 부른다.) 우리 틀칸에 옥칼이 머이제?

#3 목기 깎는 칼대라고 그래요. 옥칼을 설명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벌은 칼을 버든칼이라고 해요. 벌은 것이 잘 깎인디, 대신에 찍힐 수가 있어요. 옥칼은 안으로 옥았다고 해서 옥칼이라고 해요. 옥았냐 벌었냐의 차이요.

@ 그러면 매칼은 어떤 것인가요?

#3 매칼이란 것은 바닥을 반반히, 매끄럽르게 고른 것을 매칼이라고 해요. 매칼은 매끔하게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재가리칼이제. 이 칼을 더 자세히 구분을 하려면 눈질칼 하고 선질칼로 구분이 돼요. 선질은 나무를 뚫뚫뚫 통으로 잘랐을 때는 선질이 되는 것이고, 눈질은 판자로 켜 때가 눈질이 돼요. 송판식으로 흐면 눈질이라. 눈질칼은 번고, 눈질은 인자 판자를 쳐갖고 만드는 것이고, 선질칼은 칼은 칼인디 쪼금 옥아. 옥칼이여.

@ 눈질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3 눈질은 판자가 누워 있다는 뜻이요. 그런개 누워 있다고 해서 눈질이고, 선질은 나무가 서 있다고 해서 선질이라고 해요.

@ 이것은 뭐예요?

#1 간나다이. 간나다이는 일본말인디, 조종혼다 그 말이라. (목기를 깎으려고 칼을) 얹어놓고 조종혼다 그말이여. 일본말로 간나다이는 가눔혼다 그런 말인겁그만잉.

@ 아, 여기다가 칼을 올려놓고요.

#1 목기를 가눔혼다는 말이여.

@ 이것은 뭐예요?

#1 초가리방울이. 초가리할 때 쓰는 것인디. 이것을 응석이라고 그래. 응석은 크기에 따라 다 틀려. 이것 전체를 방울이라고 그래. 초가리칠 때 이런 방울이를 또 따로 만들어. 초가리는 목기를 크기에 따라 대강 깎는 것인디, 그 크기를 가눔힐 수가 없은개 초가리방울이를 끼워서 그 크기에 맞게 깎는 거여. 응석이 있은개 거기에 꼭 맞아서 깎을 수가 있어. 그런디 응석이 있은개 목기에 흠이 생겨.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재벌 때는 쓰는 것을 다시 만들어. 이것을 재벌이방울이라고 그래. 제기가 여러 가지 크기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맞춰서 쓰는 거여. 초벌은 응석에다 박아서 깎을 수가 있는데 재벌은 상처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재벌방울을 여기에다 박아. 이렇게 해서 재벌깎기가 들어가는 거여.

7. 칠 공방 이야기

@ 지금 하고 이 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요?

#1 사포질.(아주머니 3명이 사포질을 하고 있음, 아주머니 2명은 목기를 물에 씻어서 사포질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마른 수건으로 닦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사포질을 몇 번이나 해요?

#1 보통 칠은 한 6번에 끝내거든. 사포질은 매번 해. 매번. 칠혼다매에 또 (사포질을) 흐고, 또 흐고 그래. 반복해서 해. 반복해서 6번 해. 요 우그에 또 칠을 해. 그리고 또 사포질을 해. 그래야 칠이 묻어.

(칠을 하는 옆방으로 이동을 한다.)

여그 한번 봐바.

@ 안녕하세요.

#1 거그는 자네허고 같은 서씨라. 같은 서썬개 인사허고. 허허. 서남대핵교 교수라.

@ 이거는 닦아서 올려놓는 거예요.

#1 칠흘라고요.

@ 칠을 하는 붓은 크기에 따라 따로따로 이름이 있어요?

#1 아니요. 따로 이름이 잇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쓰면 돼요. 제기의 크기에 따라 서 또 칠을 해야 할 부분의 크기에 따라서 붓을 (선택해서) 쓰면 돼요.

@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1 해라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해라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로는 젓는 거라고 해요.

@ 이것이 옷이에요?

#1 예.

@ 이 옷은 먹는 것이 아니지요?

#1 먹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배합을 해가지고 옷칠을 하는 거요.

@ 칠하신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3 한 30년 넘었지요.³⁾

@ 원래 집이 여기세요?

#3 아니요.

@ 그러면 어디세요?

#3 저기 경기도 파주.

@ 경기도 파주?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오셔서?

#3 한 20년 됐지요. 91년도에 왔으니까.

@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어요?

#3 친구 따라 온 거죠.

@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3 한참 걸릴 텐데요.

@ 저기 안에 들어가셔서 이야기해주세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3 서정구.

@ 아,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누구 어떤 친구를 따라서 오게 됐어요?

#3 아니, 처음에는 서울에서 칠을 했어요. 74년도엔가 서울에서 배웠어요. 그때 옛날에

3) 제보자 #3은 옷칠 과정을 제보한 서정구 제보자의 구술내용이다.

는 한참 장롱 같은 거, 나전칠기 장롱 같은 거, 그런 거, 주로 많이 했지요. 아조 한 동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사치품이라고 해가지고 죽기 시작했지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했어요.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에서 인장함, 인장함이라고 인자, 학 두 마리 넣고서, 문선명이가 통일교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한남동에서 했었으니까, 거기서 한 10년 있다가 그때 당시는 선정이었죠? 지금은 SK죠. 그 회사하고 손을 잡았던 모양이에요. 태국 공예하고, 큰 그룹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깐 적자만 나서 그만 뒀죠.

@ 적자가 났어요?

#3 이 칠이 크게 이득을 못 보거든요. 적자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에서 손을 떼 거죠. 직원이 한 120명 되는 것을 갖다가 전부 해고시키고, 몇 명만 해다가 친구가, 내가 몸이 안 좋았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여기가 공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 오니까 못 허겠더라고요. 여기 와서.

@ 왜요?

#3 거기에서 칠하던 것하고, 여기에서 칠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요. 거기서는 큰 것만 만지다가, 여기서는 작은 것만 만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답답하고 못하겠더라고요. 올라갈라고 했는데, 참다보니까 한 20년 됐어요. 친구따라 와가지고서는.

@ 그 친구가 누구였어요? 이름이?

#3 김영천 씨라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 그 친구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3 이 동네 친구가 또 하나 있었지요.

@ 아, 그래서 알게 돼서.

#3 내가 쫓아온 친구는 서울서부터 같이 일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지요.

@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무엇부터 배웠어요?

#3 서울서 칠하는거 하고,이거 칠하는 거 하고 똑 같죠. 거기 서울에서는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작은 것만 하고, 그러니까 칠은 똑 같은데, 하는 거는, 하는 방식은 똑 같은데, 처음부터 이거 현 거죠.

@ 서울서도 칠을 했으니까요?

#3 여기와서 배운 거는, 특히 달른 거는 칠을 갖다 쌍칠을 쓰는 거니까, 그 당시 고생을 했죠.

@ 옷 오르고 그랬어요?

#3 옷은 면역이 되고 나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 처음 배울 때 옷 올랐지, 여기와서는. 옷이래는 거는 살이 타고 그러면, 이거는 살이 타거든요. 살이 타가지고 껌데기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거든요.

@ 생옷이어서 그런가요?

#3 그냥 정제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생옷은 살에 닿다 하면 타버린다고. 그러니까 옷오르는 사람들은 꿈만 꺾도 옷 오르는데, 우리는 인자 면역이 됐으니까 인자 뭇은 데만 조금 가렵고 마는 거지. 처음 옷 올랐을 때는 아주 죽었어요.

@ 어떻게?

#3 남자들은 제일 먼저 오르는 데가 여기, 사타구니거든요.

@ 사타구니?

#3 오줌눌 때 소변볼 때 이걸 만지니까, 여기부터 옷 오르고, 인자 면역만 되고 나면 괜찮은 거죠. 옷이래는 거는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옷이래는 거는 옷을 한번 올랐다 하면 20일 정도 되면 낫거든요. 인제 좀 빨리 낫으려면 씻지를 말아야 돼.

@ 아,

#3 옷이래는 거는 지저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데 가서 잔비발에 가서 흘러당 벗고 두어 바퀴 뒤집어지고 씻지 말고 한 닻새 있으면 낫어요.

@ 아, 옷을 한번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오른가요?

#3 그런데 그것도 오르는 사람이 있고, 안 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기 아줌마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옷이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면역이 됐더라고, 보리까.

@ 이렇게 하면 한 달에는 얼마나 받으세요?

#3 한 달에, 한 달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받아요. 하루에 6만원, 7만원원 받아요. 일요일날 일 하고 그러면 그 두 배를 받죠. 바쁠 때는 밤일까지 하고.

@ 아, 안 할 때는 안 받고요?

#3 그러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간이 있지. 이거는 일년 내내 바쁜 물건이라서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나도 불일 보러 다녀야 되고.

@ 하루에 일을 하면 보통 몇 개씩이나 칠을 해요?

#3 그건 대중은 없어요. 대중은 없고, 인제는 밑에 칠하는 거 하고, 위에 칠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는 칠하는 부위가 많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 아, 여기는 빨리빨리 칠해가지고요.

#3 항아, 그러지요. 대중은 없는데 보통 하루에 이런 거(큰 것) 같은 경우는 150개, 200개 정도.

@ 큰 것은요?

#3 항아.

@ 작은 거는 훨씬 많겠네요?

#3 작은 거라고 더 많이 하는 게 아녀요. 작은 것도 큰 거나 또 같어요. 작은 거 하고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부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 아.

#3 큰 거 칠하다 작은 거 칠하면 더 많이 칠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녀요.

@ 아아, 그래요? 작은 게 신경이 더 쓰이나 보죠?

#3 작은 게 신경이 더 쓰이죠. 다른 사람들 보고 이런 거(작은 거), 겹예를 칠하라고 하면 칠하지를 못해요. 겹예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손에 칠만 잔뜩 묻히지 허들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것을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잡지를 못해요.

@ 잠깐만요. 그 잡는 거, 사진 좀 찍고요.

#3 요로케 잡고 칠한다고.

@ 그런데 우리가. 거 장판 같은 데도 칠하면 붓 자국이 남잖아요? 붓 자국이 안 남게, 어떻게, 이렇게 해요?

#3 칠을 배합을 잘 해야 돼요.

@ 배합을?

#3 배합을 잘 해야 되는데, 칠하는 것은 인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칠하는 것도 기술이지마는 어떻게 칠하는 귀발자국이 어떻게 안 나느냐? 우리는 일본말로는 귀발이라고 그러는데요, 배합을 잘 해야지 배합을 잘못하면 붓 자국이 나고, 허영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배합을 잘 해야 돼요.

@ 그러면 배합을 어떤 비율로?

#3 배합도 인제 해가면서 해야지, 말로는 힘들어요.

@ 아니, 대략만, 생칠이 있고, 뭘?

#3 생칠을 인제 정제를 했 줄 알아야 돼요. 정제를. 갖고 와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칠을 갖고 오면은 한번 걸른단 말이요.

@ 뭇에다가 걸러요?

#3 솜으로 걸러요.

@ 솜으로?

#3 솜으로 걸르는데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 솜을거기다 담가두는 거예요?

#3 담그면서 걸르는 거지요.

@ 아, 아.

#3 이걸 보면은, 이 솜이 있거든요. 여기다 인제 해가지고 빨래짜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면.

@ 아, 아. 거기에다 생옷을 붓어가지고, 붓어서 짠다고요?

#3 예, 예. 그러니까 상매 칠할 때는 저걸로 걸러서.

@ 뭐 칠할 때요?

#3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서 칠할 때 저걸로 완전히, 저걸 칠지라고 그러거든요.

@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칠을 붓으면 똑똑똑 떨어진다 그 이야기네요?

#3 그렇지요. 여기에다 해가지고 마지막 칠할 때 걸러가지고 쓰는 거지요. 여기서 떠가지고 걸른단 말이요.

@ 예.

#3 뭐 하실려고(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래요?

@ 아니,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책으로 남겨놓고 그릴려고요.

#3 우리가 한참 배울 때는 마저가면서 배웠거든요.

@ 아, 아.

#3 매를 맞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귀발부터 안 줘요. 귀발부터 안 주고.

@ 귀발이 뭐예요?

#3 이것, 붓, 붓보고 귀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요걸 하나 준단 말이에요. 요걸 해라하고 그러거든요.

@ 해라?

#3 일본말로 해라라고 그래요. 이걸 정식으로 할라면 나까도끼, 수미도끼, 일본말이 쪽 인제, 이것 따는 거 보고 한국말로 따는 거라고 그러지만 나까도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을 내고 그럴 때는 수미도끼라고 그러고, 인제 사비하고 따를 때는 인제 한국말로 사비따는다고 하지마는 초벌따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말로.

@ 일본말이 많네요?

#3 나전칠기는 원래 일본서 왔거든요. 대부분 일본말로 많이 쓰죠. 일본 사람들이 칠은 한국사람보다 낫는데 자개는 한국 사람을 못 쫓아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정식으로 배울 때는 이런 걸 전부 알아가지고서는, 해라 같은 거, 이런 연장도 처음에 이걸 하나 주면서 맞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맞추라 그런다. 그러면 할 줄 몰라가지고 매도 맞고 그래요.

@ 어떻게 맞춰요?

#3이건 지금 낭창낭창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올 때는 이렇게 두껍다고, 이게.

@ 아, 이렇게 두꺼워요?

#3 자시 손에 맞게 만드는 거죠. 연장을.

@ 아, 이제 얇게?

#3 지금도 아마 서울에 가면은 이런 거 만들거요. 요런 칼 같은 거, 내가 서울에서 쓰다가 갖고 온 것인데, 요런 칼은, 이게 인자 자개 우게 칠을 굵는 거거든요.

@ 아.

#3 이것도 우리가 다 직접 만든거요. 그러니까 팔지를 앓는다고요. 이런 거는 돈 주고도 못 사요.

@ 이견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연장 이름이?

#3 자개 굽는 칼이라고 그러죠. 절에 가면 반야심경이라고 있잖아요? 이견 송곳칼이라고 그러는데 반야심경 같은 거 옛날에 참 많이 했거든요.

@ 요즘은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십니까?⁴⁾

#1 현재 산내면은 남원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고향 친구들은 대부분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떠났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마을에서 흥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어. 또 술을 멀리하는 습성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일도 쉽지 않아. 하지만 정초에 기금을 마련하는 일이나, 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 공장을 운영하면 수입이 좋으시겠어요?

#1 내가 운영하는 ‘금호공예’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바루 등의 불기(佛器)와 제기, 상, 찬합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데, 직원들 월급주고 나면 큰돈은 못 벌어도 내가 쓰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야. 매달 전라북도에서 주는 70만원을 더하면 한 달에 대략 300만원 정도 수입이야. 집안의 큰일은 내가 하지만 살림이야 집사람이 다 알아서 하지. 자식들 모두 도시에서 열심히 벌어먹고 살아. 나야, 가끔 찾아오는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주는 게 할아버지로서 큰 기쁨이지. 번 돈 내에서 지출하며 사는 게 내 철학이야.

8. 목기 교육기관 이야기

8.1.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

@ 옛날에 목기깎는 기술은 어떻게 배웠어요?

#1 대한민국에 목기 핵교가 있었던 것이 없어. 목기 맨드는 핵교가 없었어. 대한민국

4) 지금부터는 김을생 제보자의 구술 내용이다.

에 유적이 없잖아?

@ 산내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나서 목기를 만들었던 목공학교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1 그것이 1925년이라. 왜정시대 때. 내가 알기로는.

#2 옛날에는 6학년 마치면 목공과해가지고 졸업생들이 2년간인가 3년간인가 목기 깎고 그런 거 했지.

@ 아, 1925년이 아니고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1929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 아,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4년 차이가 나는데, 그 연대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1929년이 맞은 거겠지. 본래 일본애들이 설립을 했는디, 처음에는 국민학교를 실상사에서 모집했다고 흐딩만.

@ 아, 실상사에서요?

#1 그래가지고 그것을 4년간 흐고, 마천이 2년간 했제. 그래서 마천 가서 2년을 졸업했다고 그래. 아까 25년인지 29년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인자, 일본 선생이 오고, 지리산의 목기 자원이 좋으니까 병설로 목기 목공과를 맨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국가에서 병설로 그냥 3년 과정으로 목공과를 맨들었다고 그래. 그래 개설을 허고 깎는, 백기를 깎는 과가 있고, 목기를 다듬는 과가 있고, 칠을 만드는 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2년간은 맨드는 과정을 치중허고, 마지막 1년은 칠을 허는 것을 했다고 그래. 총 3년간을 목공과 기술과를 졸업허면 기술자로 대접을 받고, 그 분들이 아조 칠을 잘 했고, 목기를 잘 맨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방 이후까지 그것을 했어. 해방이 45년에 됐잖아. 45년까지 유지가 됐어.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고 허든가?

@ 목기 깎는 것을 보셨어요?

#2 봤제. 거 큰 사람들이 다니고 그런 거 봤제.

@ 언제까지 그런 거를 했었어요?

#2 산내중학교 생기기 전까지 했제.

@ 해방 이후예요?

#2 하먼 그렇제.

@ 해방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1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목공과가 없어져버렸어. 일본이 해방이 된 이후에. 없어져가지고 그래 있다가 인자 자네 하나씨가 인자. 그때는 플라스틱하고 스텐레스가 없더니깐 그때는 목공예가 유일한 그릇으로 역할이 컸었어. 그래서 서금용 교장선생님이 과거에 목기를 만들었던 그런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목공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목공의 중핵교 과정을 만들어보자. 1952년도에 전라공업기술학교 목기핵교를 서금용 교장선생님이 설립했거던, 만들었어. 왜정 때는 해방될 때까지 산내국민학교에서 목공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고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꼬? 그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1-2학년 땀개 모르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 목공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서금용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을 빙자해서(이유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전라공업기술학교가 있어야 허겠다, 그런 거를 발판으로 해서 중핵교를 설립을 한 거라.

@ 그때 초등학교의 목공예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1 그때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가 작고를 했어. 내가 알기로는 작고를 다 했어. 그때는 그분들이, 기술자들이 대우가 좀 좋았어. 대우가 좋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은 집이 그래도 조개 넉넉했어. 학교에서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조개 넉넉했어. 그래서 그분들은 목기를 만들라고, 기술을 배우라고 허는 마음을 가지고 진학을 했었거던. 인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때는 농사허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가? 그런게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갔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대략 일 년에 몇 명 정도나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1 한 10명, 15명 고 정도배끼 안 되더라고. 그분들이 3년간 과정을 졸업하고 나갔지. 학위도 없고, 졸업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랬제. 그냥 기술만 배우고 그랬제.

@ 그때 주로 배운 사람들은 여기 산내, 마천 사람들이었겠네요?

#1 하-, 그렇제. 그렇게 한정되어 있었제. 그분들이 소년대 서성렬씨라고 허는 분이 있고 했는디 다 죽었어. 양기택씨라든가 다 죽었어. 서준옥씨는 선생을 했었제. 기술자였제.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중핵교 선생을 했어.

@ 선생님은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1 여기 양재훈이 아버지가 뭐꼬? 양선생이라고 있어, 칠을 잘 흐는 선생이었어. 중기리 양선생이라고 그래. 목공과에 목기를 맨드는 선생으로서는 백일리 김준옥씨, 그리고 중황에 박선생이라고 있었어(이름이 생각나지 않음). 중황 다리 바로 건너에 살았어. 그분도 깎는 거에 기술자였어. 갈쳤어. 그분 손자가 지금 법원에 있거든. 가서 물어보면 바로 알아. 칠과는 선생이 한 사람빼끼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기술중학교로 와갖고는. 그 사람은 인자.

8.2. 전라공업기술학교 이야기

@ 전라공업기술학교는 1952년에 개교를 했고요, 개교할 당시의 상황이 생각납니까?

#1 그러니까 개교할 당시는 서금용 교장선생님이 교장으로 임명을 받고 중학교 타이틀을 받은 거지. 그 당시에 담임선생님이 다 있었고 해도 한 5-6명 정도 됐고, 교장, 교감 다 있었고, 기술 선생님이 있고 해서 한 10여명 가까이 됐어.

@ 그때 기술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이름 성함이랑 생각이 나요.

#1 잘 생각이 안 나지. 우리 담임은 장계 백합고등학교가 있어. 거기를 졸업하고 오셨는데 사회하고 가르쳤어. 그리고 신순갑이를 알란가 몰라. 신순갑 선생님이 우리 국어를 다 갈치고 그랬제. 그 사람이 핵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행정고시를 합격해 해가지고, 우리를 몇 년 갈쳤고.

@ 신순갑 선생님은 여기 어디 사람인가요?

#1 저기 인월 사람이여. 행정고시를 합격해갖고 문교부에서 무슨 정책국장하다가 선린중학교가 고등학교에 있다가 퇴직했는디 그 사람 기억나고, 또 다른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난그만. 한 60년 전인디 기억이 나졌어?

#2 하양, (회상하는 모습을 하며) 양기상 선생님이 목기, 하황 박준형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목기, 백일리 김, 아이고 그 이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도 목기, 그 세 분이 그런 거 가르치고, 김형만 선생님은 기술, 또 이보준 선생님은 전주 계신디 이보준 선생님. 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나네. 몇 명 되도 안 했제. 김두기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은 그 이후에 전주 구이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셨고, 참, 그 때 신순갑 선생님, 국어, 역사를 가르치시고 그랬는디, 신순갑 선생님이, 그때는 산내중학교가 부교감 제도가 있어 가지고 교감이라고 그랬었는데, 인월서 여기 산내까지 자전거 통학을 하면서 법전 책을 자전거 핸들에다가 묶어갖고 땀김서

봤다고 그래. 그래갖고 그때 보통고시 합격을 해서 전주사범학교로 전근이 됐었어. 인자 시골에 이런 학교에 계시다가 보통고시를 합격헌개 전주사범으로 발탁이 돼서 가셨어. 그래 거 계시다가 서울시교육위원회 과장으로 가서갖고, 거 계시다가 동구교육장이랑도 허고 어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도 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제.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어.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또 신 하이고 그 성함이(생각이 안 나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눈감고 생각함) 저 정읍 선생님이, 이리 원대 졸업하셨는디 그 분이 생물인가 가르치시고 그런 거 같어.

@ 아, 그 당시에도 출품을 허고 그랬그만요?

#2 아 그럼. 그 때는 양선생님, 박선생님이 그 분들이 그 전부터 해오던 것이었은개, 참 잘했제. 지금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전라공업기술학교가 폐교에 이르렀는디 그 학교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인자 서울로, 또 주민들 성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서울로 다님서, 해서 지금 산내중학교로 인가를 받았제. 그때 그리 안 했으면 학교 없어졌제. 그래도 지금 후배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애. 그 전 안 같고. 거 1회 졸업생들도 그냥 공무원들도 더러 있고, 주로 학교 계통에도 있고, 뭐 유학간 사람도 있고, 그랬던 거 같등만.

@ 그러면 그때 공부할 때는 학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목기 깎는 공부를 했습니까?

#1 우리가 목기 깎는 것은 병설을 했거든. 우리가 인자 하루에 6시간 공부를 흐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흐니까 절반절반씩 했지. 공부를 절반 흐고 목기를 절반 깎고 했제. 그렇게 나눠갖고 실습허고 일반 과목 공부허고 그랬제. 중학교 과정 다 공부흐고 그랬제. 그때 공부헌 사람들 전부다 좋은디 갔잖아. 내가 1회 졸업생인디 나는 전주공고로 가고, 배종수란 사람은 서울로 가고, 나중에 동국대를 가고 그랬제. 그때는 기술을 병행했지만 기술은 한 2년간 했을 거여.

#2 근디 우리 다닐 때는 실습을 벨로 안 했고, 인자 후배들이 했지. 우리들은 벨로. 뭐 칠기를 만지고, 칠을 혼다든지 그런 것은 안 했어. 인자 제기를 깎는 것, 발로 굴려서 깎는 거 그런 실습만 좀 했지 머. 다른 거 우리는 때는 안 했지 머.



[사진 5] 전 전라공업기술학교 교사



[사진 6] 전 전라공업기술학교 교사



[사진 7] 전 전라공업기술학교 교사



[사진 8] 전 전라공업기술학교 교사 일부

@ 맨 처음 목기를 깎는 것을 배우려면 힘들었을 것 아니에요?

#1 그러지. 허지만은 배울라고 마음을 묵고 핵교를 선택을 호니까 그냥 실습하고 그랬제. 인자 직업을 삼을라고 호는 사람들은 마스터호지만은, 인자 그 외에 사람들은 핵교가 목적인 사람들은 실습을 건성으로 호고 그랬제.

@ 그 당시에는 한 학년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1 그 당시 1회 졸업생이 한 18명 되고, 이번에 중핵교 가서 졸업생 명단을 18회까지 보니까, 목기와 360명도 안 되더라고. 내가 졸업생 명단도 문화재청에 적어 보냈거던.

#2 그때 내가 인자 이리에서 다니다가 아버지 때문에(전라공업기술학교 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2학년인디 인자 1학년으로, 1회로 들어갔는디 우리가 26명, 전체가 한 구십 몇 명 그렇게 됐었어. 그래도 졸업생들이 다 괜찮게 되고 그 후배는 지금 교육인 적자원부, 옛날에는 문교부, 문교부에 서기관도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학교 계통으로

도 더러 나가고 그랬제. 약사도 나오고.

@ 그러면 그때 학생들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 학생들이었어요?

#2 아 산내하고 마천이제. 어디에서 올 데가 있간디.

@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목기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1 그런 사람은 2회 졸업생이 이동진이라고 동진씨가 몇 년 전까지 쭉 허다가 나이가 한 칠십댓대니까 그분도 안 허고, 내가 인자 유일하게 허지. 현장에는 못가도 그래도 제작을 감독해가면서 허고 있고.

@ 이동진 어르신은 어디에?

#1 백일리. 7-8년 전까지는 했어. 그 외는 벨로 혼 사람이 없어. 아, 준옥씨 아들이라고 있그만. 그분이 아마 서울서 깔고 있을 거여.

@ 나중에 기술학교 선생님이로 간 것은 몇 연도에서 몇 연도까지 었어요?

#2 고것은 인자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집에 와서 일 허고 있을 때, 마침 영어 선생님이 가정 형편으로 쉬게 돼서 내가 그 사람 대신으로 내가 영어허고 국어 떠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랬제.

@ 그게 몇 연도에서 몇 연도까지였어요?

#2 하이고, 거 몰르겠어. 한 1963년에서 한 64년 그 금방 될 것이여. 내가 인자 정식으로 교사를 나간 것이 1966년에 나갔은개. 집에서 인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일을 했는디 아버지가 공직생활은 허지 말고 집에서 농사지라고 현디, 아버지가 출장 가시고 없을 때 그때 5월 7일 8일 이틀 동안 전주에서 임용고시 시험을 봐갔고, 시험은 5월 7일, 8일 이틀 동안 봤는디 발령은 6월 25일날 무주 안성고등학교로 초임이, 발령이 났어. 그때는 인자 강사 생활을 했어. 그래가지고 인자 무주 안성고등학교 가서 영어 교사로 있었제.

@ 그때는 소풍 같은 것도 어디로 가고 그랬었어요?

#2 소풍은 안 가고, 인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디 나는 그 때 산을 산다고 해서 나는 안 가고 말았제.

@ 학교에서 소풍을 가고 그러지는 안 했그만요?

#2 하, 그랬지. 지금 머 무형문화재니 뭐 그런거, 그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가신 양선생님 그런 분들이 받고 그랬어야제. 그런개 도에 머 출품 같은 거 호고 그러면(출품 전시를 마치고 작품을) 가져오들 못해. 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욕심을 내고 사 갔는가 거시기 했는가, 그렇게 좋게 호고 그랬어.

@ 기술중학교는 여기에 죽 있다가 나중에 매동 앞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1 68년, 그때 70년돈가 그럴 거여. 그래서 예전에 기술중학교 자리를 내가 인수를 허가 그랬제.

#2 기술중학교가 아니라 학교 정식 명칭이 전라공업기술학교여.

@ 전라공업기술학교 교사를 문화재청의 문화재로 신청서를 올린 것은 언제입니까?

#1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어. 지금 전국에 핵교로서 목기를 배웠던 핵교가 없으니까.

@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목기 깎는 것을 가르쳤던 학교는 유일하죠?

#1 그렇지. 전라공업기술핵교가 목기 깎는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지. 그러지. 서금용 교장선생님도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고, 공로자이고 그러시니까.

@ 학교 다녔을 때 생각나는 것은 뭐 없습니까? 재미난 이야기 같은 것 좀.

#1 그 당시만 해도 인자, 6.25 사변이니까, 뱀사골 쪽은 잔당이 있었어. 잔당이 있어가지고 아조 핵교를 밤에도 피해 다니고 그랬어. 인월 가 자기도 히고 그랬어. 52년도까지 잔당이 있었어. 고 놈들이 밤으로 보급투쟁을 헐다고 모도 쌀을 털로 오면 우리는 피해서 가고 그랬어. 그때 우리는 18살 먹고 그랬으니까. 잡아갈까 싶은개. 인월 가 자기도 히고 그랬어. 싸우기도 히고 그랬어. 고런 이야기. 또 핵교 앞에 물이 참 맑았고 좋았어. 오염이 안 된개. 학생들이 전부 점심시간에 목욕도 호고 고런 추억도 있고. 그 때는 핵교를 등록을 호면 군대를 안 갔었거던. 마천이나 이런 데서는 고걸 노려서 들어오던 사람들이 많았어. 군대를 피헬라고.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정년이 가까웠지만 그런 사람들은 20살 묵은 사람도 있고 그랬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고등핵교도 가고, 또 머리가 트이면 더 가기도 호고 그랬제. 그때 마천 애들이 다 잘됐어.



[사진 9] 퇴임식



[사진 10] 전라공업기술학교 졸업 기념

8.3. 산내중학교 초대 교장 퇴임사

공사간에 일도 바쁘시고, 날도 이렇게 좋지 못하는데, 참여해주기 위해서 멀리 남원에서, 운봉에서 또는 본 면에 있는 농촌에 바쁜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저를 위로 해주시니, 이 감사한 뜻을 설사 이 몸이 없어져 백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는 잊을 수 없을 것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명색이 교육계에 투신한지 근 30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점을 떠나서, 우리나라 건국이념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이념을 받들고, 그 밑에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문교행정을 담당하신 문교부장관 이하 각 도에는 말할 것 없지만은, 우리 도에는 교육감 이하 여러 교육위원님들, 또 이 교육행정을 담당해서 이들이 맡은 바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감독하시고 지지해주신 뜻을, 명색이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어연간 마음이 잘 하려고 해봐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를 않고, 근 30년 동안을 국록을 소모만 했던가 싶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30년 동안 명색이 아들을 거느리고 갈쳐왔다고 해도 갈친 아들 가운데에 몇 사람이 나 참 사람이 나와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이념에 발맞춰서 과연 나라를 위하고, 겨레를 위하고, 또 집안을 잘 다스려 나가고, 개인이 훌륭하게 입신양명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다지 없는 것도 같아서, 실로 맡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저에게 과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물러나는 오늘에 생각해 볼 때는 마음에, 국가에 대해서 또 행정을 담당해준 이들에 대해서, 또 학부형 여러분에 대해서 실로 마음에 죄송스러운 생각 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에 있어서는 소위 인간개조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잘 하나 못하나 날마다 학교를 바라보고 나오던 이 몸이,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명이 아닐 것 같고, 또 밖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제가 벌써 예순 다섯이 넘어서, 앞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어디를 바라보는 것인가 생각할 때, 과연 한쪽으로 이 대열에서 물러난 것이 섭섭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 세상이 이렇게도 무상한 것인가

하는 뜻에서 노인들을 쳐다볼 때에 당신네들도 얼마 안되어서 65세나 70세가 되리라고 이런 점에서, 세상을 대할 때에 어쩐지 대깊은 용기가 나지를 않고, 섭섭한 생각만 납니다. 그래서 이 대열에서 물러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만은 저같은 사람이 교육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고, 다른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능력있는 그런 선생님들만이 학교를 운영해나간다고 하면 국가에서 바라는 뜻, 학부형 여러분들이 바라는 뜻에 조금이라도 어김이 없다는 점에서는 제가 물러난다고 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실로 제가 나기는 구례에서 나고, 크기는 산내에 와서 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에서 돌아가시고, 산내의 땅에 묻혀있습니다. 우리 온 식구들이 산내의 땅에서 의식주의 생활을 경영해오면서, 지금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례에서 나고 산내에서 자란 저로서, 이 산내의 이 땅은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분골쇄신이 되더라도 산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분신 노력하겠다는 뜻은 항상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찬을 많이 받았습시다마는 1948년 5월 원광대학교 교수로, 교무처장으로 있다가 교수직을 내던지고 산내로 오게 된 것은, 산내에서도 유지분들께서 변변치 못한 저를 오라고 해서 산내의 책임을 맡아달라, 당시 도의원 되는 박재윤씨께서 일부러 원광대학에까지 찾아와서 저같은 것을 끌어다가 산내에다가 쓰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내를 위해서 좀 애써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 혼자서 영달을 위했다고 한다면 혹 사양했을지도 모르겠습시다만 하루 이틀 밤을 두고 생각해서 저같은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연히 교수직을 내버리고 여기 돌아와서 전라공업기술학교를 15년 동안을 끌고나왔습니다만은 30명의 학생을 채우는 데에도 27명, 26명 그렇게 되다가 15명 되던 끝에는, 겨우 신입생 모집한 것이 12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시다. 12명이 되는 학교에 선생님이 7분, 서무, 교장인 저까지 합치면 9명인데, 적잖은 돈이 산내로 쏟아지게 됩니다. 12명 학생쯤이 3학년이면 30명쯤 되는 학교가 선생님이 없어지는 인건비가 많아서, 도에서는 산내에 학교가 존재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곤문을 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교를 문을 닫고 나서게 되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아들을 마지막 내보내고 뒤따라 나오면서 문을 닫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여 명밖에 안 되는 이 땅에 중학교를 세워줄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믿는 것이 교육위원들이나 학무당국에 조르고 조르고 또 졸라서 눈물이라도 흘리고 피눈물을 흘려서 끝끝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은 되도록 해보자고 하는 결심 속에서 운봉에 계신 박원용 선생님이 당시 교육위원으로 계실 때에 사사로 찾아가서 몇 번 조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거가 중학교 되기는 참 어려운 데이네.”

“어려우니까 선생님께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 때의 제 심정이 박위원님의 가슴을 울렸던지 박위원님께서서는 그러면 허다 못하면 분교라도 해달라고 말했더니, 분교가 되면 교장은 물러나야 되는데, 열백번 물러나고 분교만 되고 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나니 박위원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동안 산내는 6.25 이후로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내를 생각해서 운봉에 살고 계시는 박원용 선생님이 산내면 면민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걸 꼭 해줘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무한한 활동을 했지만은, 원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박위원님께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은 그냥 쉽사리 산내중학교를 세워주자고 하는 결의가 난 것이 아니고 도회지의 젊은이들이 학교 시설을 끌어갈려고 애를 쓰는데 당신네들이 그것을 해갈려고 하면, 내가 요구하는 상대 학교도 들어달라, 이것이 조건부로 해서 산내 학교를 승인하도록 결의가 되고, 그 대신 박위원님께서 다른 데 학교의 것도 승인하는데 찬동을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파란 중첩이 쌓이고 쌓인 가운데, 어렵게 생각하는 동정의 눈물 가운데 산내중학교가 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가가 된 후에 저는 어떻게라도 심부름을 잘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뜻을 꼭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신 그 뜻을, 또 그 당시 허관리국장님께서 산내를 생각해주신 뜻을, 그 뜻을 받들어서 완전히 학교를 뒷손볼 것 없이 잘 만들어놓고 나갈려고 여태까지 결심을 가지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뜻대로 쉬운 것이 아니어서 겨우 한다고 하는 것이, 교실 3칸을 지어놓고 또 금년에는 교무실 한 칸을 더 짓도록 하는 것을 9월달에 착수하도록까지 했습니다. 겨우 이래놓고, 운동장 반은 허물어놓고 완전히 만들지도 못하고 떠나게 된 저의 심정은 참으로 평생에 잊지 못할 한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

마치 제 가슴 가운데 남아 있는 한이 어려서 한울님께서 마치 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 가슴 가운데 맺힌 눈물이 자연으로 변해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제 심정이 대단히 괴롭기는 하고, 여러 면민들, 그 불쌍한 처지에서 200원, 300원 내지 700원, 1,000원 돈, 그 외로 개인이 특별 희사하는 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8,000원, 10,000원, 30,000원, 일본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 산내에 계시는 교포분 가운데 마침 이 사정을 잘 통해주신 한 분이 100,000원을 흔연히 주셔서, 만일 그 당시에 100,000원이 나오지 않았던들, 그 당시 써가지고 있었던 8만원 돈은 지금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마침 일본에 계신, 원천리 김재홍씨 동생되는 김재수씨가 돈 십만원을 보내서, 그 외로운 처지에 자기 살기에도 괴로운데, 산내 학교를 만든다고 100,000원을 보내주셔서 근근이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끝을 세우지 못하고 나서는 이 마음은 죽어도 죽어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서운한 생각이 있고, 설사 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간다는 생각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고, 지금도 나는 영원히 내가 죽기까지에는 산내 학교를 위하여 그런 생각은 남아 있겠습니다.

또 산내 면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한푼두푼을 거두고 거둬서 학교를 생각 해주신 일, 또 그 외에 변변치 못한 힘이나마 학교를 위해서 애썼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에 저를 위로해주신 그 깊은 은혜는 제 마음에 길이길이 잊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바이고 길이길이 마음 가운데에 제 행동으로써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데서 거짓없는 행동으로써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변변치 못한 저에게 과분한 치하를 많이 해준 그 축하에 말씀을 가슴에 아로 새겨서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또 학교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학교의 가난하다는 사정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 아래에서는 이 가난한 학교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 가난한 처지에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다만 탁주 한 잔이라도 설비를 해서 오늘 저를 위하는 이 퇴임식을 베풀어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에게는 보내는 송사 가운데에 너무 과분한 치하를 많이 받은 것 같고, 제군들을 항상 제군들의 장래에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제군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제군들을 떠나지 않지만은, 오늘로써 학교에 나오던 길을 막고 제군들을 작별하게 되는 이런, 참으로 마음에 슬픈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부디 내가 바라는 생각은, 내 뜻 가운데에 중간에 내가 말한 바 있지만은, 내가 말한 것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마음 가운 가운데 남아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국가에도 홍익인간 개조라고 하는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대한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명색이 교가를 2절 만드는 가운데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다음에 너희들이 교가를 듣더라도 내 뜻이 교가에 새겨 있는 것을 부디 잊지 말고, 영원히 훌륭한 사람이 돼주기를 바란다.

1969.8.31.

산내중학교 교장 서금용

제 4 장 조사된 어휘

1. 남원과 목기

남원 목기의 역사는 한때 승려가 3천여 명이 넘었던 신라의 고찰이자 대가람인 실상사 승려들로부터 주민들이 바리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더구나 실상사가 자리 잡고 있는 지리산은 산이 깊고 넓어 다양한 수종이 있어 목기의 질 좋은 원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남원을 한국 최고의 목기 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게 하였다.

철제와 플라스틱 제품이 보편화되기 전에 주로 목기로 만든 생활 도구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다. 조상에 대한 제사가 일상사였던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원 목기는 생활 도구뿐만 아니라 제기·불교용품 등의 수요를 감당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남원 목기는 독특한 향과 함께 모양이 정교하고 섬세하며, 목기 자체가 단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원 목기는 옛날부터 왕실에 진상하는 진상품이었으며, 조선왕조 500년 동안 궁궐에서 사용한 제기는 모두 남원 목기였다.

그런데 지리산에는 자생하는 옷나무가 아주 많으므로 예전부터 남원 지방에서는 옷의 원액을 쉽게 채취하여 목기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남원은 목기 생산의 천혜의 지역인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산내초등학교 목공과, 해방 후에는 전라공업기술학교에서 남원의 전통적 목공예 기술을 전수하여 걸출한 목공예 장인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오늘날 목기하면 남원 목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 것이다. 현재 남원에는 100여 곳의 목공예업체가 있으며 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5명이나 된다. 또 대전·광주·경기 지역의 장인들 대부분이 남원 출신이다.

남한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지리산 자락의 남원은 옛날부터 지리산에서 자란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이용하여 목기를 만드는 산업이 크게 번창하였다. 더구나 최초의 산문인 실상산문이 남원의 실상사에서 개창되었으므로, 남원은 자연히 한국 선종의 중심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나무로 만든 불교 용구 산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목기 산업은 한때 산업화에 밀려 퇴조하였지만 1990년대 이래 웰빙 산업의 발전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원 지역의 대표적인 목기로는 운봉의 목기와 남원시 일원의 소반이 전국적으로 유명

하다. 예전에는 남원에서 제작된 상을 메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팔았다. 소반은 음식을 먹기 위한 한국 전래의 평좌식 식탁의 총칭이다. 상이라 하면 소반, 교자상, 제상, 책상 류에 속하는 것을 두루 말하지만 대체로 소반을 가리킨다.

소반에 대해서는 2008년에 타 지역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제기와 바루로 한정하여 조사한다.

2. 목기

2.1. 목기 제작 기계

지금 목기를 깎는 기계가 옛날과 다르다. 옛날에 처음에는 짜구질을 해서 목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짜구질을 해가지고는 목기를 다듬고 해야 하는데 목기를 만드는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목기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목틀이다. 새로운 목기 기계를 목기틀이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기계는 목틀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잡아 당기면서 만드는 방법이었다. 새충의 가지처럼 벌어진 나무를 양쪽에 세우고 그 홈 위에 큰 통나무를 올려놓는다. 큰 통나무를 두 줄로 감아서, 줄을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나무가 이쪽으로 돌게 되고, 저쪽에서 잡아당기면 저쪽으로 돌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목기를 제작한 것이 목틀로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펴보니 목기를 깎는데 능률이 안 오르니까 새로운 기계를 고안하게 된다. 줄을 잡아당기던 것을 발로 밟게 만들었다. 한 사람이 발로 밟아 가면서 목기를 깎는 기계를 만들었다. 그 기계를 발 족자를 써서 족틀이라고 했다. 이렇게 만든 기계가 발전된 것이다. 전라공업기술학교 목공과는 발로 하는 족틀로 기술을 배웠다.

그 다음에 목기를 찾는 수요가 많으니까 물레방아의 원동력을 돌려가지고 목기를 깎는 기계가 발명되었다. 물의 원동력을 이용해서 기계가 계속 돌아가게끔 했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이용한 기계이다.

- ⇒ 첨에는 우리 조상들이 현 기계는 {목틀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째아 땀겨어.
- ⇒ 또 옛날에는 {짜구질을} 했어. 짜구질을. 짜구질을 해가지고는 능률이 안 오르잖아.
- ⇒ 목기를 따듬고 그래야 허니까.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목틀이지. 고것이 시초에 인자 {목기틀이라고} 그래.
- ⇒ 한 사람이 발로 밟아 가면서 깎는 것을 만들었어. 발 족자해서 {족틀} 그러지.
- ⇒ {전라공업기술학교 목공과는} 발로 허는 족틀 이걸로 했어.



[사진 11] 조영석 수공선차도



[사진 12] 윤두서 선차도



[사진 13] 현대 목기 기계



[사진 14] 목기 기계



[사진 15] 현대 목기 기계



[사진 16] 절동



[사진 17] 가리밥

2.2. 목기 제작 과정

제작 과정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원목은 원목 안의 수분이 최소화되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벌채 작업을 한 원목을 사용해야 한다. 원목 안의 수분이 많은 봄, 여름에 벌채한 원목은 완제품이 되더라도 갈라지거나 썩이 스는 원인이 된다.

제일 처음에 원목을 절단해야 한다. 목기의 원자재는 물푸레나무, 박달, 노각, 괴목, 오리목이며 노각과 괴목을 고급으로 쳐주고 있다. 가을에 벌채하여 6-7개월 이상 건조한 다음 이러한 원자재를 사용 용도에 맞게, 제기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알맞은 크기로 절단하여 초벌깎기에 적당한 재목을 마련한다. 원자재를 톱으로 자른 뒤 제기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초벌깎기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재목을 마련한다. 절단된 재목을 초벌깎기 하기에 알맞도록 재목의 가장자리를 둥근 형태로 다듬질한다. 다듬질한 원목을 제기의 형태로 짐작하여 끌칼을 사용하여 외형의 거친 부분을 초가리하여 투박한 형태의 제기를 완성한다.

초벌 깎기 후 잘 건조된 나무토막을 틀에 고정하고 발 또는 동력으로 돌리면서 적당한 부분에 끌을 갖다 대면 가리밥이 나오면서 허리가 날씬한 목기가 나온다.

- ⇒ {토막내기} 원목을 뚝뚝뚝방 잘른 것이라. 절동.
- ⇒ 절동한 다음에 나무 옆을 자르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근목 다듬}. {근목 다듬이라고} 해. 원목을 이런 형태로 다듬는 것을 귀도리흔다고 해. 귀도리.
- ⇒ 우리 창고걸은 디에 나무가 짝 찼거던. 그거는 나무를 말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 기계로 허드라도 일단 {초가리라고} 그래. {초가리만} 해놔. {초가리}.
- ⇒ 초가리가 {초벌깎기여}.



[사진 18] 원목



[사진 19] 원목



[사진 20] 절동



[사진 21] 절동



[사진 22] 절동



[사진 23] 절동 후 음건



[사진 24] 절동 후 음건



[사진 25] 절동 후 음건



[사진 26] 귀도리



[사진 27] 귀도리



[사진 28] 초가리 후 음건



[사진 29] 초가리 후 음건



[사진 30] 가리밥



[사진 31] 가리밥

두 번째는 초벌깎기이다. 일단 절단한 원목을 용기의 형태를 짐작, 끌칼을 사용하여 외형을 깎은 후 습도가 높지 않은 음지에서 약 150일간 건조시킨다. 절단된 재목을 초벌깎기 하기에 알맞도록 재목의 가장자리를 둥근 형태로 다듬질한다. 다듬질한 원목을 제기의 형태로 짐작하여 끌칼을 사용하여 외형의 거친 부분을 초가리하여 투박한 형태의 제기를

완성한다. 초벌깎기가 완성된 제기는 습도가 높지 않은 음지에서 약 5개월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며 건조된 제기는 선별 작업을 통해 형태가 고른 재목만이 재가리용으로 사용된다. 음건(음지에서 건조하는 것)은 나무 제품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 하양, 초가리라. 인자 그것을 갖다가 인자 {음건을} 해. 햇볕에 대면 나무가 갈라져분개. 그것을 {음건}. 그늘에 말린다고 해서 {음건}. 그것이 보통 단일품목 같은 거는 6개월이면 되고, 제기 같은 단일품목은 날개로 들어가잖아.



[사진 32] 귀도리



[사진 33] 초가리 준비



[사진 34] 바루 초가리



[사진 35] 초가리



[사진 36] 바루 초가리



[사진 37] 바루 재가리

세 번째는 재벌깎기이다. 초벌깎기 후 150일간 음건한 재목의 고르지 않은 면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으로 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요소를 선별하면서 완벽한 형태의 목기로 만드는 과정이다. 틀에 고정하고 발 또는 동력으로 돌리면서 적당한 부분에 끌을 갖다 대면 가리밥이 나오면서 허리가 날씬한 목기가 나온다. 이 때 목기의 거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포질 등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반복하여 완벽한 형태를 얻게 된다. 초벌깎기 후 잘 건조된 제기를 깎고 다듬는 과정으로 깎기의 마지막 과정이며 이 과정을 끝으로 칠하기 전 제기의 완제품인 백기가 완성된다.

- ⇒ 그래 재가리는, 묵은가리힐 때는 말리가지고 인자 손으로 다해. 우리 겉은 경우는 그냥 기술자가 많이 있는개 처음도 수작업을 하고, 재가리도 수작업을 하고 그런개 능률이 안 올라. 재가리를 {재벌깎기라고} 해.
- ⇒ 그러면 {재가리는} 아직 기계로 못해. 아직 안 맞아. {재가리를} 헐라면 나무가 말라야 하고 가다도 안 나고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 ⇒ 그래 재가리는, {묵은가리힐} 때는 말리가지고 인자 손으로 다해. 우리 겉은 경우는 그냥 기술자가 많이 있는개 처음도 수작업을 하고, 재가리도 수작업을 하고 그런개 능률이 안 올라.



[사진 38] 제기 초가리



[사진 39] 제기 재가리



[사진 40] 바루 재가리 후 음건



[사진 41] 재가리 후 음건

재가리가 끝나게 되면 5~7회를 반복하여 원하는 칠을 한 뒤 10일 정도 다시 말리게 된다. 초벌칠은 칠하기의 처음 과정이며 백기로 완성된 제기는 그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방습성, 방수성, 방충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며 칠은 생옷칠과 카슈칠이 사용된다.

초벌칠한 제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재벌칠이 잘 먹도록 마른 사포질을 한다. 초벌칠한 제기를 칠하고 건조시키고 또 물 사포질하는 과정을 5~6회 반복하여 마모 방지와 내구성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제기가 된다.

네 번째는 칠하기이다. 재벌깎기까지의 과정에서 완성된 목기인 백기(白器)를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측면과 방습·방수를 위한 칠하기 과정으로 초벌칠과 6~7회 재벌칠로 나뉜다. 살충력과 마모 방지에 강한 자연산 옷칠과 카슈칠 등 2종으로 구별된다.

옷칠은 옷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 생칠, 화칠 그리고 다양한 색상으로 정제 가공된다. 특히 옷칠의 경우 적당한 온습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건이다. 옷칠 및 카슈칠이 목기에 적절하게 침투하여 은은한 광택을 얻기 위한 목기의 완성 단계로 이 과정을 끝으로 고품질의 목기가 생산된다. 목기를 선별하여 제품으로 출하한다.

- ⇒ 왜 안 찾았냐 허기 되면은 그 때는 옷을, {옷칠허는} 것을 거의다 잊어먹어 버렸어. 화학칠로 해갖고는 사람한테 안 좋으니개로 스님들이 안 사.
- ⇒ 보통 칠은 한 6번에 끝내거든. {사포질은} 매번 해. 매번. 칠흔다매에 또 {사포질을} 흐고, 또 흐고 그래. 반복해서 해. 반복해서 6번 해. 요 우그에 또 칠을 해. 그러고 또 {사포질을} 해. 그래야 칠이 묻어.



[사진 42] 제기 백기

2.3. 제기 숫자

제기 한 세트의 기본 숫자는 제기접시 22개, 어틀 1개, 떡틀 1개, 탕기 3개, 잔대 3개, 잔 3개, 위패 1개, 향로 1개, 촛대 1쌍(2개)으로 37개이다. 여기에 추가로 10개를 하여 47

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 10개를 추가로 하는 것은 밥그릇세트 2벌(4개), 수저세트 2벌(4개), 퇴주그릇 1개, 간장종지 1개이다.

제기 그릇이 보통 옛날에는 32개, 42개이었다. 42개의 제기를 접제기, 32개의 제기를 홀제기라 했다. 그런데 제기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42개는 너무 많고, 32개는 너무 적어서, 지금은 보통 37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43] 지방틀



[사진 44] 지방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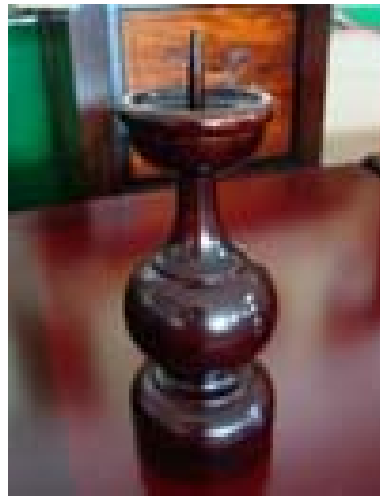
[사진 45] 지방틀



[사진 46] 지방틀



[사진 47] 향로



[사진 48] 촛대



[사진 49] 과기



[사진 50] 과기



[사진 51] 주발



[사진 52]잔과 잔받침



[사진 53] 잔과 잔받침



[사진 54] 편들



[사진 55] 위패 상



[사진 56] 나무제사상의 위패



[사진 57] 위패 상



[사진 58] 위패 상



[사진 59] 식기



[사진 60] 식기와 수저



[사진 61] 제기



[사진 62] 제기



[사진 63] 퇴주 그릇



[사진 64] 퇴주 그릇

2.4 제기의 명칭과 크기

제기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편틀은 떡을 꺾어 올릴 때 쓰는, 굽이 높은 나무 그릇이다. 편틀은 두 개인데 정사각형이고 떡을 담는 그릇이다. 고기틀은 직사각형의

로 고기를 담는 그릇이다. 과기는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을 담는 것으로 조금 큰 것으로 4개가 있다. 적들은 적기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침개를 부쳐가지고 쭉 놓은 것이다. 작은 접시는 소접시라고 하는데 은행, 대추, 추자(호두), 꽃감과 같이 작은 과일 같은 것을 놓는 것이다.

목기의 크기는 용도별로 제각각이다. 보통 제기는 일반적으로 키가 7.5센티이다. 부처님 앞에 올리는 차판 같은 것은 약 12센티이다.

목기의 폭은 용도별로 다르다. 접시는 제일 작은 것인데 13센티 정도 되는 것이 다섯 개이다. 그 다음에 한 15센티 정도 되는 것이 다섯 개, 그 다음에 16센티 된 접시가 다섯 개, 18센티가 두 개다. 그리고 제일 넓은 것이 21센티로 두 개, 이렇게 해서 접시만 19개이다.

약간 움푹 들어간 나물 그릇이 15센티 정도이다. 탕기는 찌개(湯)를 담는 그릇이다. 보통 한 11센티 정도로 세 개가 있다. 간장 그릇과 술잔은 한 8센티 정도이고, 잔받침은 한 11센티 정도이다.

향로는 향을 태우는 것으로 높이가 높아야 돼서 길이가 9센티 정도인데 폭은 일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향로는 홀로 있는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나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폭이 넓어도 되고 좁아도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이 없이 그때그때 나무에 따라 만든다.

지방틀은 지방을 써서 붙여놓는 것으로 규격은 보통 높이가 28센티이고, 넓이가 한 10센티 정도이다. 지방틀도 지방을 써서 그냥 넣는 것도 있고, 문이 달린 것도 있다. 수저의 길이는 대략 25센티에서 23센티 정도이다.

2.5. 제기 제작 공구

2.5.1. 가리칼

제기 깎는 칼을 통칭해서 가리칼이라고 한다. 초벌깎는 칼을 초가리칼이라고 하고 재벌깎는 칼을 재가리칼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말이 가리칼이다. 가리칼의 종류로는 옥칼, 버든칼, 매칼이 있다.

1) 옥칼, 매칼, 버든칼, 오비칼

옥칼은 초가리칼로 칼끝이 옥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목기의 외형을 거칠게 깎는 칼로 초가리 때 사용하는 칼이다. ‘옥다’는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져 있다.’<표준>이다. 매칼은 재가리칼, 마무리칼이라고도 한다. 매칼은 목기의 바닥을 평평하게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칼이다. 매칼은 ‘매끔하다’에서 온 말로 매끔하게 다듬는 칼이란 의미이다. 매칼은 바닥을 반반히 고르는 것, 매끔하게 그르는 것을 말한다. ‘매끔하다’는 ‘말끔하다’의 전북방언이다. 버든칼은 칼끝의 각도가 밖으로 벌어 있는 칼이다. ‘번다’는 ‘끝이 바깥쪽으로 향하여 있다.’이다. 가리칼을 더 자세히 군분을 하면 눈질칼과 선질칼로 구분할 수 있다. 눈질

은 판자를 켜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송판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선질은 나무를 뚝뚝뚝 통으로 자른 것을 말한다. 눈질하는 칼을 눈질칼이라 하고, 선질하는 칼을 선질칼이라 한다. 선질칼은 같은 칼인데 조금 밖으로 옥아 있는 칼이다. 오비칼은 옷칠할 때 재철의 사포 과정에서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칼이다. ‘오비칼’은 ‘호비칼’의 전북방언이다. ‘호비칼’은 ‘나무 따위의 속을 호벼 파내는 데 쓰는 칼. 몸이 바짝 굽고 칼날이 양쪽으로 나 있으며 주로 나막신 코의 속을 파낼 때 쓴다.’<표준>로 풀이되어 있다.

- ⇒ 그것은 {옥칼}, {옥칼}, {초가리칼이라고} 그래. 대개 초가리는 대동소이해. 저쪽에 가면 인자 {가리칼도} 있어. 저쪽 깎는 거.
- ⇒ 초가리칼이 {옥칼이라}. 칼끝이 옥아다고 해서 옥칼이라고 혼단 말이어.
- ⇒ 칼이 밖으로 번었다고 해서 {버든칼이라고} 그래.
- ⇒ 응, 있네 옥칼이 있고, 버든칼이 있고, 인자 {매칼이} 있고.
- ⇒ {재갈이칼을} {매칼이라고} 혼디 바닥을 매끔하게 흘 때, 마무리할 때 쓰는 칼이어.



[사진 65] 가리칼



[사진 66] 옥칼



[사진 67] 버든칼



[사진 68] 옥칼



[사진 69] 버든칼



[사진 70] 망치

2) 칼대(칼받침대)

제기를 깎을 때 칼을 고정시키는 것을 ‘칼대’ 또는 ‘칼받침대’라고 한다. 칼을 조정하여 고정하는 것을 ‘간나다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일본말인데, 목기를 깎으려고 칼을 얹어놓고 조종한다는 뜻이다.

- ⇒ {칼대} 고 거는 이렇게 호는디, (기계가) 돌아가니까 빙 돌아가니까 (왼손을 밑에 받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서) 이게(나무를 끼운 기계가) 요리(오른 쪽으로) 돌아가니까 오그댕댕헌디 요것을 땡개 자연히 머냐 파이제.
- ⇒ 일본말로 간나다이는 가늠흔다 그런 말인겁그만잉. 목기를 가늠흔다는 말이어. {칼대} 고 거는 이렇게 호는디, (기계가) 돌아가니까 빙 돌아가니까 (왼손을 밑에 받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서) 이게(나무를 끼운 기계가) 요리(오른 쪽으로) 돌아가니까 오그댕댕헌디 요것을 땡개 자연히 머냐 파이제. 그것도 대개 엉터리 해갖고 인자 그것을 갖다가 해보면은 칼을 조개 숙이야 되겠다, {옥아야} 되겠다 그거는 직감적으로 다 아는 거라. 오래 호다보면. 조개 오래 호다보면. 이게 {번어빠리먼} 이게 안 먹어. 잘 안 먹어. 그런개 그때 선생이 한번 코치를 해줘. 이 칼 이것은 이럴 경우에는 약간 이, 잘 못 됐다. 그때 그 코치를 받으면 기술이 높아가지고 자기가 응용을 호는 거제, 누가 일일이 그거를 다 갈쳐가지고 헐 수가 없는 기고. 그런개 그걸 해 보면 젤로, 최고로 잘 묵는 그 위치에서 딱 머물러지거든. 아, 요리 맨드러야 되겠구나. 직감적으로 알아, 인자. 그런 거는 배울라고 맘 묵으면은 그런 거는 잠깐이만 헐 수 있어. 처음에는 안 보면 모르지. 그래가지고 몇 개 해 보고, 선배들 고친 것 보면은 딱 알아. 그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맨들어야 돼.



[사진 71] 칼대



[사진 72] 칼대



[사진 73] 절단 톱



[사진 74] 톱날

3. 바루(발우)

3.1. 바루의 명칭

바루는 적당한 양을 담은 밥그릇이란 뜻으로 절에서 부처 또는 승려들이 소지하는 밥그릇이다. 바리, 바리때, 발우라고도 한다. 승려들이 탁발할 때 쓰는 것으로 몇 개를 포갤 수 있어 휴대에 편리하다. 바루를 몇 개 포갤 수 있는가의 숫자에 따라 4합, 5합, 7합, 13합, 15합 등이 있다. 바루는 제일 큰 것이 밥을 담은 ‘어시바루’, 그 다음이 ‘국바루’, 설거지물을 받아두는 ‘천수바루’, 제일 작은 네 번째 바루가 ‘반찬바루’로 나뉜다. 여기에 하나를 보탠 것을 ‘5조바루, 5합바루’라고 한다. 네 개, 다섯 개를 포개면 딱 맞아야 하므로 바루 제작이 어렵다. 또 바루는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과 공력으로 만든다.

바루는 은행나무나 은사시나무로 만든다. 바루는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목을 잘라

야 한다. 나무를 자를 때 나무를 툇 툇 툇 끊는 것, 즉 가로로 자르는 것을 선질이라 한다. 그리고 나무를 판자로 켜는 것, 즉 세로로 자르는 것을 눈질이라고 한다. 나무는 툇툇 자른 선질보다는 눈질로 켜는 것이 나무가 안 갈라지고 좋은 것이다.

절에서 바루를 사용법은 엄격하다. 옛날 임금님이 만발공양을 할 때 제일 큰 밥그릇에 밥을 가득 차게 담았으므로 어시발우라 하여 밥그릇에는 물이나 국을 받아먹지 않으며 비벼 먹지도 않는다. 밥그릇은 자기 무릎의 왼쪽 바로 앞에 놓고 국그릇은 오른쪽 바로 앞에 놓으며 찬그릇은 밥그릇 앞에 놓고 물그릇은 국그릇 앞에 놓는다.

공양을 알리는 목탁(혹은 종) 소리가 나면 대중방으로 와 조실 혹은 주지스님이 어간(중앙문)에서부터 가부좌하여 앉는다. 발우를 펴는 데에는 전발계를 하고 죽비소리에 따라 발우를 편다. 다음에 반야심경을 외우고 십념(十念) 공양을 돌리고 봉발계(奉鉢偈)를 한다.

부전스님이 죽비로 신호하면 조용히 발우를 순서대로 편다. 행자가 청수물을 돌리면 큰 그릇에 물을 받아 국그릇 찬그릇으로 행구어 청수물 그릇에 부어 놓는다. 밥과 국이 분배되면 각각 공양을 받아 놓되 자기 역량대로 털어서 남거나 적지 않게 한다.

분배가 다 이루어지면 반야심경을 생각하면서 다음 글귀를 외운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여 사회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공양이 끝나면 밥그릇 국그릇 찬그릇을 깨끗이 씻어 고춧가루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마시고 그릇을 닦아 원래대로 쌓아 놓는다. 이는 질서 있고 청결하고 근검, 엄숙한 수행의식으로 옛날의 임금들도 이 발우공양을 통하여 국민의식을 고양하였다.

⇒ 그런개 바루때 같은 거는 물을 담구니까, 물을 담구고 그러니까 선질로 허는 것이 아니라 눈질로 해야 돼. 판자를 키갓고, 그래갓고 그거를 바짝 말려. 그거를 한 일년 말리면은 터질 거는 다 터지고 그런 담에 재갈이를 한다. 그래서 크기에 맞게 맞춰 너면 돼.

3.2. 바루의 숫자와 크기

3.2.1. 4합 바루

바루의 숫자는 4합이 기본이지만 필요에 따라 5합, 10합, 15합이 되기도 한다. 5합으로 할 경우는 특별한 반찬의 용도나 찻잔으로 사용하기 위해 1개가 더 필요할 때이다. 또는 스님들이 산중으로 공부하러 들어갈 때 바루 외의 다른 살림살이는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도반이 찾아 올 경우를 대비하여 10합을 준비하기도 한다. 또는 은사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장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기도 한다.

바루의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5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개의 그릇이 차곡차곡 포개져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제일 작은 것을 5센티로 만든다. 5센티에서 1센티씩

크게 5개를 만들면 제일 큰 것은 10센티가 된다. 왜냐하면 바루의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목기는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스님들이 쓰는 바루의 기본은 4개라. 4합으로 해 그냥. 그리고 조개 올라와서 5합으로 호는 것 인디, 스님들이 반찬을 4합으로 호면 딱 맞는디, 반찬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가 먹기가 좀 곤란해서 고추장을 더 먹는다든지 해서 별미가 있을 것이 아니것어? 자기 사찰에서. 그것을 담아 놓고 묵기 위해서 5합을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말차라고 있었어. 차. 차 그릇을 허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4합, 5합인데 아까 10합이네 15합이네 호는 것은 스님들이 산중에 들어갈 경우에, 공부하려 갈 때 살림은 한 개도 안 가져가고 바루 거 하나만 가져가면은 거기에 밥을 다 묵을 수 있고 또 도반이 와도 거기에 밥을 다 묵을 수 있으니까 한 개씩 허고. 또 작품으로 소장하려고 호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은사의 제사를 지낼라고 할 때 그 하나갖고 제사를 다 지내. 스님들은 바루를 한 벌 준비하면 평생 써. 의사 가발을 주그 스님을, 은사라고 해. 그러면 한 벌을 사.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자기 상좌가 생기면 또 냉기조(넘겨줘). 그런 제도로 때문에. 목기가 망가져야 팔린디 안 팔려.
- ⇒ 바루는 다섯짝이 있는데, 다섯짝마다 조개 키를 인자 정호지 못하고, 고것도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한 5센티 정도에서 시작허거든. 바루가 한 10센티 정도의 범위이니까로 1센티씩 높아지면 대개 5센티에서부터 시작하면 한 10센티 가까이 돼거든. 너무 또 높아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목기는 조화를 이뤄야 돼. 바루가 큰 것 같으면은 조개 커야 되고, 높이를 키워야 어울리고, 그래 서로 균형을 잡아갖고 가는 거라. 일정한 뭐 규격이 없는 것이고, 균형이 맞게끔 허는 것이제.



[사진 75] 15합 바루



[사진 76] 바루 뚜껑



[사진 77] 바루



[사진 78] 바루



[사진 79] 바루



[사진 80] 4합 백기 바루

3.3. 바루 제작 과정

3.3.1. 절동

바루 제작 과정에는 ‘절동, 원목다듬, 귀도리, 초가리, 재가리, 옷칠, 사포질’이 있다. 절동은 원목을 필요한 크기로 자르는 것이다. 원목다듬, 귀도리는 원목의 옆 부분을 자르는 것이다. 초가리와 재가리는 바루 형태로 초벌깎기와 재벌깎기를 하는 것이다.

바루를 제작하기 위해서 원래 긴 나무통 원목 하나에서 여러 개, 크고 작은 바루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원칙적으로 바루를 경제적으로 제작하려면 딱딱 규격을 맞춰서 1볼 2볼 깎아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깎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루를 한 두벌만 깎는다면 규격에 맞춰서 깎을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소량 생산을 하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무를 한 차 사면 큰 나무, 작은 나무 등 크기가 다양한 나무가 있다. 바루의 1차 제작과정은 절동이다. 꺾을 절, 나무 둥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확인할 수 없다. 원목 나무를 원하는 크기대로 자르는 단계이다.

- ⇒ 나무를 한 차를 사면은 나무가 작은 것도 나오고 큰 것도 나오고 층층이 나올 것인 아닌가? 그래서 만드는 것이지.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많이 주문이 들어온개, 막 계속 말려야 되니까, 나무가 한 차가 들어오면 작으나 크나 무조건 깎아. 그러면 그것은 깎는 사람 채금(책임)이여. 깎는 사람이 추려가지고, 몇 센티 몇 센티 추려가지고 4합을 깎고, 아까 그러 것 10합 등을 깎고 그래. 그러게 돼 있어.
- ⇒ 깎는 것은 저 사람이 깎는디 지금 이 사람이 {절동을} 해. {절동}. 한번 돌리 봐. 우에 덮어 놓으면 안 갈라지지.



[사진 81] 귀도리



[사진 82] 절단 톱과 원목



[사진 83] 바루 초가리



[사진 84] 바루 재가리



[사진 85] 바루초가리



[사진 86] 바루 재가리

3.3.2. 귀도리

두 번째 단계는 원목 다듬인데 귀도리와 동일 의미이다. 절단한 다음에 나무 옆을 자르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초가리로 귀도리한 다음에 바루 모양대로 초벌 깎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음건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재가리로 정밀하게 다듬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6-7번의 옷칠 단계를 거쳐 바루가 완성된다.

- ⇒ 바루도 어느 정도는 기계로, 그런디 일단은 나무가 잘 말라야 안 허 것는가? 우리 창고걸은 디에 나무가 짝 찼거던. 그거는 나무를 말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 기계로 허드라도 일단 초가리라고 그래. 초가리만 해놔. 초가리. 그러면 재가리는 아직 기계로 못해. 아직 안 맞아. 재가리를 헐려면 나무가 말라야 허고 가다도 안 나고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래 재가리는, 묵은 가리헐 때는 말리가지고 인자 손으로 다해. 우리 걸은 경우는 그냥 기술자가 많이 있은개 처음도 수작업을 허고, 재가리도 수작업을 허고 그런개 능률이 안 올라.
- ⇒ 원목 다듬. 원목 다듬이라고 해. 원목을 이런 형태로 다듬는 것을 {귀도리흔다고} 해. {귀도리}.

3.3.3. 초가리(초벌깎기)

나무의 크기에 맞게 절단한 후 4합이나 5합에 맞춰서 무조건 초가리를 하여 바루를 깎아 둔다. 바루는 나무의 규격에 따라 크기가 유동적이다. 일단 절단한 재목을 용기의 형태를 짐작하여 끝갈로 깎은 다음 습도가 높지 않은 음지에서 약 150일 이상 건조한다. 귀도리된 원목을 바루로 초가리할 때는 바루의 규격을 측정하기 위해 콤팩스를 사용하여 크기를 가늠한다. 바루의 크기에 따라 귀도리한 원목을 초가리방울이에 부착한다. 초가리방울이는 초가리할 때 바루의 규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이다. 목기 기계에 부착한 후 초가리할 나무를 연결하여 바루를 깎는 것이다. 바루의 크기에 따라 방울이의 크기도 다르므로 교체해야 한다. 초가리방울이에는 응석이 있다. 응석은 초가리방울이에 제기의 규격을 표시한 쇠부착물이다.

- ⇒ {초가리방울이를} 끼우고 초가리를 해요.
- ⇒ 방울이에 {응석이} 달려 있어서 표시를 해줘요.



[사진 87] 콤파스



[사진 88] 바루 속 파내기



[사진 89] 초가리방울이와 응석



[사진 90] 방울이

3.3.4. 재가리(재벌깎기)

재벌깎기는 재가리, 묵은가리라 한다. 초가리로 대략적인 형태를 갖춘 바루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다. 재가리할 때 제기나 바루의 크기에 따라 재벌방울이를 교체해야 한다. 초가리 때는 응석을 박아서 깎으므로 제기에 상처가 생긴다. 그러나 재가리할 때는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응석이 없는 재벌방울이를 사용한다. 재가리 때는 더욱더 정성을 들여 깎아야 한다. 재가리가 끝난 상태의 묵기를 백기라 한다. 백기는 나무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얀 나무 그릇이란 의미이다.

⇒ 재가리는 상처가 안 나야 된개 (재벌방울이를) 써요.



[사진 91] 재가리방울이



[사진 92] 재가리방울이



[사진 93] 바루 재가리



[사진 94] 재가리방울이



[사진 95] 방울이



[사진 96] 방울이

3.3.5. 목기가 트다

나무는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제기나 바루를 만들 때는 나무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무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늘에서 오래도록 건조시키는 것이다. 적절

한 시간이 흐르면 건조하고 있는 나무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나무가 고르게 건조하도록 해야 한다. 나무를 그늘에서 건조하는 것을 음건이라고 한다. 음건을 오래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나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제품이 갈라지는 것을 목기가 트다라고 한다. 이때는 그런 제품을 선별하여 불을 때서 파기한다.



[사진 97] 제기가 트다



[사진 98] 바루가 트다

3.3.6. 틀칸

목기 작업을 하는 공방을 목기 공장 또는 틀칸이라 한다.



[사진 99] 목기틀



[사진 100] 틀칸의 목기틀

3.4. 바루 생산지

목기로 가장 유명한 곳은 남원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70% 이상이 남원 목기이다. 오늘날 남원 목기를 생산하는 곳은 남원시 노암동, 운봉읍, 인월면, 산내면이다. 남원목기가 유명한 것은 산내면 신라의 고찰 실상사 승려들이 식기인 바루 제작 과정에서 습득된 높은

기술이 목기제작과 연결되었다. 실상사 승려들에게서 전수한 바루 제작 기술이 제기와 상등 남원 목기의 근간을 이뤘다.

남원 목기는 가내 수공업 형태로 기술이 전수되던 것을, 1929년 산내초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목공과를 병설하여 공교육기관에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 교육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다시 가내공업의 형태로 기술 전수가 이뤄졌다. 목기 제작 기술의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실감한 산내면과 주변 사람들의 요구로 1952년 전라공업기술학교가 개교되어 일반 중학교 교육과정과 목공과 교육을 병행하였다. 사회 여건의 변화로 1967년에 전라공업기술학교가 산내중학교로 전환되었다. 실상사에서부터 비롯되었던 남원목기의 제작 기술이 가내공업과 공교육기관, 다시 가내공업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지금도 전수되고 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풍부한 산림자원과 더불어 사용되는 목재의 독특한 향과 함께 재질이 단단하고 모양이 정교하며 섬세하기 때문에 남원 목기는 유명하다. 남원 목기의 탈상지는 실상사가 있는 남원시 산내면이다.

- ⇒ 목기 깎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어. 없단개. 여그만. 그 옛날에는 극한(제한)되었는데, 남원 시내에 많잖아. 시내에 많은디, 그 사람들은 막, 우리는 전통방식으로 깎는데, 요즘은 기계로 많이 깎아부리잖아. 기계로. 전문적인 화학칠을 해서 많이 흐잖아.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해조. 또 남원을 떠나서 목기를 만들면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다른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어데에든 있기가 있겠지. 허지만은 머 기냥 주그가 고걸로 해갖고 맨드라갖고 유통시키기가 힘드니까.



[사진 101] 산내초등학교



[사진 102] 전라공업기술학교

4. 옷칠

4.1. 옷이란?

옷칠은 옷나무의 줄기에 상처를 입혀 흘러나오는 수액을 채취한 것이다. 옷의 성분은 면역이 되지 않아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을 ‘옷오르다, 옷타다’고 한다. 옷칠의 주성분은 우루시올(urushiol)이라는 분포화 결합기를 가진 2가 페놀인데, 산화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옷칠은 물체에 자유롭게 색깔이나 광택을 주어,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강하고, 열과 약품에도 잘 견디고 접착력도 크며, 물체를 튼튼하게 하여 물체의 보호와 장식의 효과에서 옷에 비길만한 도료를 찾을 수가 없다. 옷나무는 6년생을 기준으로 채취되고 있으며 권장되는 옷나무의 수령은 8 - 10년으로 이 시기에 채취된 옷액이 가장 양질이다.

4.2. 옷 채취법

옷칠을 옷나무에서 채취하는 시기는 6월 초순부터 10월 말까지 입목상태에서 채취한다. 삼복 이전에 채취되는 옷액을 초칠이라고 하며, 삼복 중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시기에 채취되는 옷액을 성칠 또는 성물이라고도 한다. 그 이후에 채취되는 것을 말칠이라 하며 또한 가지내기칠(지칠)이라고도 한다.

옷나무를 수평으로 상처를 내면 이 부분에서 수액이 나오는데 그 색상은 회백색의 유상액이며, 공기와 접촉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차 짙어진다. 이 상태에서 수액을 긁어낼 때 목분, 모래들이 섞여있어 이를 1차 여과 시킨 것을 생옷이라 한다.

생칠은 채취 방법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지는데, 살아 있는 옷나무에서 채취한 칠을 생칠이라 하고 옷나무를 잘라 불에 쪄어가며 채취한 칠을 화칠이라 한다. 옷나무 가지를 잘라 흐르는 물에 담가 두었다가 눈매에서 흘러나오는 칠을 채취하는 것은 수칠이라 한다. 옷나무에서 옷칠을 채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살소법(殺搔法), 양생법(養生法), 화소법(火搔法) 이 있다.

옷을 가까이 하다 옷의 독성으로 피부가 짓무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옷 오르다’라 한다.

4.3. 칠의 정제과정

옷나무에서 채취한 생칠은 채취 중에 나뭇잎이나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불순물을 여과기에 넣어 걸러낸 것을 정제생칠이라고 한다.

대개의 경우 생칠이든 정제칠이든 테레빈유로 희석을 하고 나서 칠지로 짠다. 칠지를 반으로 접어서 2겹으로 하여 손으로 그릇에 눌러서 집어 넣는다. 왼쪽에 생칠과 테레빈유를 희석해 놓은 칠그릇이 있다. 희석해 놓은 옷칠을 칠지에 쓴다. 칠지의 양단을 가운데로 모은다. 가운데로 모은 칠지를 그릇의 상단에 붙여가면서, 양손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튼다. 칠이 천천히 흘러 나오도록 조절하면서 양손으로 칠지를 돌린다. 너무 세게 비틀면 터지니까 주의한다. 칠한다. 붓도 충분히 빨아야 한다.



[사진 103] 옷칠 정제



[사진 104] 칠통



[사진 105] 옷칠하기



[사진 106] 옷칠하기

4.4. 옷칠 과정

목기를 만드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 옷칠 과정이다. 옷칠은 초칠을 시작하여 6-7번 반복하여 칠을 한다. 초칠, 곱서, 재칠, 상매칠의 과정을 거친다. 초칠은 백기에 처음으로 칠을 하는 과정이다. 초칠은 칠하기의 처음과정으로 목재 표면을 사포로 연마한 후 옷칠이 목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하는 공정이다. 백기로 완성된 제기의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방습, 방수, 방충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초벌칠한 재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재벌칠이 잘 먹도록 마른 사포질을 한다. 초칠을 할 때는 쇠꼬리붓으로 한다. 쇠꼬리붓을 초칠붓이라 한다. 초칠을 한 후 두 번째 과정이 곡서이다. 곡서는 목기에 흠이 있을 때 흠을 파내는 작업이다. 나무란 것은 흠이 없을 수가 없으므로 굽어진 것을 편다고 하여 곡서라고 한다. 곡서의 작업이 끝나면 파인 흠에 삽입의 과정을 해야 한다. 파인 흠을 메우고 곱게 메우는 과정이 삽입이다. 삽입을 마친 후 두 번째 칠인 재칠을 한다. 재칠 후 건조하고 또 사포질을 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6-7번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눈에 안든 제품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여 완성시킨다. 마지막 칠의 과정을 상매칠, 상칠이라 한다.

- ⇒ 초칠을 하고 두번째 순서가 인자 {곡서라고} 그래. 칠을 때운 디를 파가지고 집어 여. 구버진 것을 편다고 그래.
- ⇒ 칠허는 것은 초칠, 초벌칠을 하고 {재칠을} 7-8번 해.
- ⇒ {상매칠은} 마지막 칠인디, 티도 없게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런개 물가에서 해. 상매칠은 제일 좋은 칠이제. {상칠이지}.



[사진 107] 칠섞기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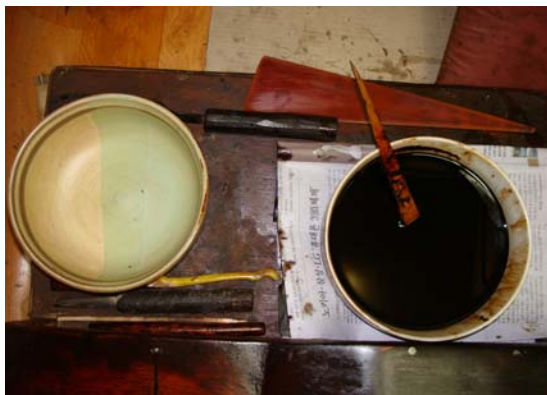
[사진 108] 칠하기 준비



[사진 109] 사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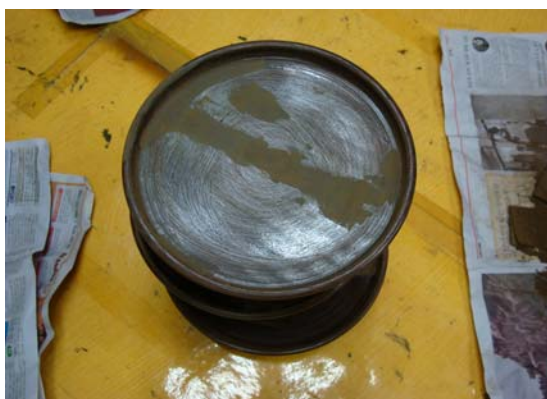
[사진 110] 씻기



[사진 111] 칠섞기



[사진 112] 사포질



[사진 113] 사포질



[사진 114] 사포질



[사진 115] 중칠하기



[사진 116] 곡서



[사진 117] 삽입



[사진 118] 삽입



[사진 119] 선별 작업



[사진 120] 선별하기



[사진 121] 옷칠하기



[사진 122] 쫓대 선별하기



[사진 123] 선별하기

4.5. 옷칠 도구

목기의 세부 분야 중 옷칠을 하는 분야를 칠기 또는 칠과라고 하며, 옷칠을 하는 기사를 치사라 한다. 옷칠을 생산하여 파는 것을 칠을 내다고 한다. 목기를 칠하는 데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처음 하는 칠을 초칠이라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칠을 상칠, 상매칠이라 한다. 초칠과 상매칠 사이에 5-6번의 칠하는 과정을 중칠이라 한다.

4.5.1. 칠지

생칠을 거를 때에 사용하는 종이를 칠지라 한다. 옷칠을 하는 사람들은 솜이라고 말한다. 생옷을 칠지로 걸러서 배합을 잘 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말한다. 칠을 할 때 붓으로 칠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칠지로 칠을 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른 후에 잘 배합하는 것이 진정한기술이다. 그릇 위에 거름망을 걸고, 칠지 두 장을 올린 후에 생칠을 부어 거른다. 칠의 철분이나 이물질이 거르는 것을 칠거르다고 한다. 그릇 위에 거름망과 칠지를 놓고 생칠을 부으면, 생칠의 철분이 걸러진다. 옷을 머금은 칠지를 한약을 달여 짜듯이 짠다. 이렇게 칠지에 남은 생칠을 짜는 행위를 ‘칠짜다’라고 한다. 옷을 담는 통을 칠통이라 한다.



[사진 124] 칠지



[사진 125] 칠지



[사진 126] 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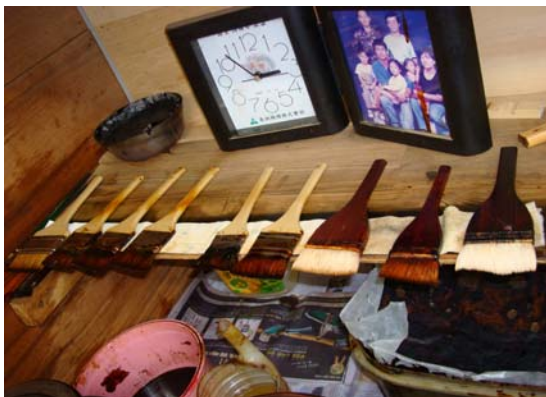


[사진 127] 칠통

4.5.2. 쇠꼬리붓, 인모붓

거른 칠을 휘젓어 섞는 도구를 해라라고 하는데 일본어이다. 순화시킨 말로 젓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도 일본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옷칠을 할 때에 사용하는 붓을 풀비라 한다. 풀비에는 쇠꼬리붓과 인모붓이 있다. 쇠꼬리붓은 소꼬리의 털로 만든 붓으로 초벌칠할 때 쓰며 거칠게 칠해진다. 인모붓은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붓으로 부드러운 붓인데 마무리 칠을 하는 상칠, 상매칠할 때 사용하는 붓이다. 칠을 했는데 풀비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귀발자국이라 한다.

- ⇒ 초칠할 때는 {쇠꼬리붓으로} 흐제.
- ⇒ {인모붓은} 재벌칠에, 중칠, 상칠에 쓴다.



[사진 128] 칠붓



[사진 129] 칠붓



[사진 130] 칠하기



[사진 131] 칠하기



[사진 132] 옷나무



[사진 133] 옷나무



[사진 134] 뽕나무



[사진 135] 뽕나무

4.5.3. 옷이 피어나다

옷칠을 한 물건을 넣어 굳히는 장을 칠장이라 한다. 칠장을 상살이라고도 한다. 보통 5칸의 선반을 건너지른다. 칠장에는 언제나 습도가 80%, 온도가 30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옷칠한 목기가 2~3년이 지나면 은근한 붉은 빛이 감돌면서 아름다움의 농도가 더욱 짙어지는 것을 옷이 피어나다라고 한다. 옷칠은 시간이 경과해야 불게 피어나서 그 진가를 더욱 뱃낸다.

4.5.4. 칠 내다

옷칠을 생산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칠을 사는 행위를 칠내다고 한다. ‘내다’는 쌀, 콩, 팥 따위의 곡식을 팔다는 의미로 ‘쌀 한 말 냈다’고 할 때와 같은 용법이다. 칠의 경우는 ‘칠을 한통 냈다’고 말한다.

⇒ {칠내는} 사람한테서 칠을 사다가

4.5.5. 칠사와 목기사

목기의 기술자 중 옷칠을 하는 기술자를 칠사라고 하고, 목기를 깎는 사람을 목기사라고 한다. 목기를 깎는 기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되어야 한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나무의 재질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터득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목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장인을 목기장이라 한다. 목기장은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는데, 기능보유자는 1993년 6월 10일 지정된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의 김광열, 1995년 6월 20일 지정된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의 박형준, 1996년 3월 29일 지정된 전라북도 남원시 조산동의 노동식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에서는 전라북도 남원시의 특산품으로, 전국 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바리때는 전국의 사찰 85%가 남원 목기를 사용한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다른 지방에 비해 품질이 월등하여 높이 인정받아왔다. 오리목,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만드는데, 나무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다.

목기를 깎아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난 목기가 백기인데 여기에 칠을 해서 제품을 완성한다. 옷칠은 옷나무 진에 착색제·건조제 등을 넣어 나무그릇 등에 발라 쉼지 않고 윤기나게 하는 것으로, 옷칠을 하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옷칠장이라 한다. 옷칠장의 등급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옷을 전문적으로 칠하는 사람을 목기사처럼 ‘사’를 붙여 칠사라고도 한다. 옷칠을 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칠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오랜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적절한 배합 농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옷칠을 한 목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값이 비싸다. 수많은 화학재료들 중 아직까지 천연재료인 옷의 성능을 뛰어넘는 화학 도료는 없다고 말한다. 요즘은 화학칠을 한 목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값은 저렴하나 품질은 옷칠한 목기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옷칠한 목기는 2~3년이 지나면 점점 더 색이 살아나고, 방수와 살균 효과가 커서 아무리 오래 사용하여도 썩지 않는다. 물속이나 땅속에 두어도 썩지 않는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옷칠장(정제) 보유자로 김을생, 김영돌, 이의식, 박강용이 있다.



[사진 136] 김을생 제보자의 칠하기

5. 목공예 교육기관

5.1.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

산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기를 만들었던 목공학교 이야기

처음에 국민학교를 실상사에서 모집했다고 한다. 산내에서 4년간 하고, 마천에서 2년간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천 가서 2년을 졸업했다고 한다.

본래 1929년에 일본애들이 설립을 했다. 일본 선생이 오고, 지리산의 목기 자원이 좋으니까 병설로 목기 목공과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국가에서 병설로 그냥 3년 과정으로 목공과를 만들었다. 그래 개설을 허고 깎는, 백기를 깎는 과가 있고, 목기를 다듬는 과가 있고, 칠을 만드는 과가 있었다, 그 당시는 2년간은 만드는 과정을 치중하고, 마지막 1년은 칠을 허는 것을 했다고 한다.

5.1.1. 목공과 졸업생

그때 초등학교의 목공예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가 작고를 했다. 그때는 그분들이, 기술자들로서 대우가 좋았다.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은 집이 그래도 조금은 넉넉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집안 형편이 조금은 넉넉했던 사람들이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략 일 년에 한 10명, 15명 그 정도 학교에 진학을 했다. 그분들이 3년간 과정을 졸업했다. 학위도 없고, 졸업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다만 기술만 배웠다. 그때 주로 배운 사람들은 여기 산내, 마천 사람들이었다. 교통이 불편할 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올 수가 없었고, 인근 지역인 입학생이 자연스럽게 산내와 마천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5.1.2. 당시의 선생님

선생님은 양재훈이 아버지를 양선생이라고 했는데, 칠을 잘 하는 선생이었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중기리 양선생이라고 불렀다. 목공과에 목기를 만드는 선생으로서는 백일리 김준옥 씨, 그리고 중황에 박선생이라고 있었다(이름이 생각나지 않음). 중황 다리 바로 건너에 살았다. 그분도 깎는 것의 기술자이었다. 칠과는 선생이 한 사람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었다.

5.2. 전라공업기술학교

김을생씨는 전라공업기술학교 교사를 문화재청의 문화재로 신청서를 올렸다. 전라공업기술학교가 목기 깎는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 목기학교인 전라공업기술학교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대한민국에 목기 학교가 있었던 것이 없어. 목기 맨드는 학교가 없었어. 대한민국에 유적이 없잖아?”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가 해방 이후 이어지지 않자, 산내 지역민들이 목공과를 다시 만들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전라공업기술학교 설립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었으나 당시 교장이었던 서금용(병재) 교장의 정년퇴임사의 내용을 통하여 상황을 알게 되었다.

1952년 9월 1일 전라공업기술학교가 개교했다. 학생은 학년당 30명 정원이었는데 30명의 학생을 채우는 데에도 27명, 26명 그렇게 되다가 15명 되던 끝에는, 겨우 신입생 모집한 것이 12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12명이 되는 학교에 선생님이 7분, 서무, 교장까지 합치면 9명인데, 적잖은 돈이 산내로 쏟아지게 된다. 12명 학생쯤이 3학년이면 30명쯤 되는 학교가 선생님이 없어지는 인건비가 많아서, 도에서는 산내에 학교가 존재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문을 닫게 되고 말았다. 1966년 12월 13일 전라공업기술학교를 인수하여, 1967년 3월 1일 산내중학교를 개교하였다.

5.2.1. 졸업생과 교사

그 당시 1회 졸업생이 한 18명 되고, 중학교 졸업생 명단을 18회까지 하여 360명도 안 되었다.



[사진 137] 전라공업기술학교 졸업사진



[사진 138] 전라공업기술학교 졸업사진

5.2.2. 당시의 선생님

당시 선생님으로는 교장에 서금용(병재) 선생님, 국어과는 신순갑 선생님, 그 외에 양귀주 선생님, 양기상 선생님, 박준형 선생님, 김준옥 선생님, 김형만 선생님, 이보준 선생님, 김두기 선생님이 계셨다.

⇒ 그때 선생님들 성함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말한다. 김을생 씨는 전라공업기술학교 1회 졸업생인데 담임은 장계 백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셨는데 사회과목을 가르쳤다. 그리고 신순갑이를 알란가 몰라. 신순갑 선생님이 우리 국어를 다 갈치고 그랬제. 그 사람이 핵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행정고시를 합격해 해가지고, 우리를 몇 년 갈쳤고.

신순갑 선생님은 저기 인월 사람이여. 행정고시를 합격해갖고 문교부에서 무슨 정책국장허다가

선린중핵곤가 고등학교에 있다가 퇴직했는디 그 사람 기억나고, 또 다른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난그만. 한 60년 전인디 기억이 나겼어?

⇒ 양기상 선생님이 목기, 하황 박준형 선생님이가 그 선생님도 목기, 백일리 김, 아이고 그 이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디 그 선생님도 목기, 그 세분이 그런 거 가르치고, 김형만 선생님은 기술, 또 이보준 선생님은 전주 계신디 이보준 선생님. 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나네. 몇 명 되도 안 했제. 김두기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은 그 이후에 전주 구중학교 고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셨고, 참, 그 때 신승갑 선생님, 국어, 역사를 가르치시고 그랬는디, 신승갑 선생님이, 그때는 산내중학교가 부교감 제도가 있어 가지고 교감이라고 그랬었는디, 인월서 여기 산내까지 자전거 통학을 하면서 법전 책을 자전거 핸들에다가 묶어갖고 땀김서 봤다고 그래. 그래갖고 그때 보통고시 합격을 해서 전주사범학교로 전근이 됐었어. 인자 시골에 이런 학교에 계시다가 보통고시를 합격헌개 전주사범으로 발탁이 돼서 가셨어. 그래 거 계시다가 서울시교육위원회 과장으로 가서갖고, 거 계시다가 동구교육장이랑도 허고 어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도 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제.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또 신 하이고 그 성함이(생각이 안 나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눈감고 생각함) 저 정읍 선생님이, 이리 원대 졸업하셨는디 그 분이 생물인가 가르치시고 그런 거 같다.

6. 금기사항

6.1. 목기는 때를 맞춰 제때 깎아라.

목기를 깎을 때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다만 음건을 한 후 적당한 때에 목기를 깎아야 한다. 음건을 한 후 목기를 너무 일찍 깎으면 나중에 건조되면서 목기가 터서 갈라져 버리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적절한 때에 목기를 깎아야 하는,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기 재료인 나무의 건조 상태에 따라 목기 깎기가 중요하다.

6.2. 쇠소리가 나면 제사에 귀신이 안 온다.

제사 때 쇠소리가 나면 귀신이 안 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때 그릇은 쇠소리가 나지 않는 나무로 된 그릇인 목기를, 제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6.3. 여자, 특히 월경 중인 여자는 옷칠 위를 넘어 다니지 마라.

옷칠 작업장에서 사포질 하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다. 여자들이, 특히 월경 중인 여자들이 옷칠 작업장 안을 왔다갔다 할 때 칠통이나 옷칠그릇 위를 넘어 다니면 안 된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월경 중인 여자들이 옷칠 위를 왔다갔다 하면 옷칠이 뭉어져서 물로 변한다. 옷칠이 물로 변하면 제기나 바루에 옷칠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옷칠을 할 때 여자들의 왕래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6.4. 옷올랐을 때 빨리 나으려면 5일 동안 씻지 마라.

옷이 한번 오르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한다. 약 20일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옷의 독성이 없어져 낫는다고 한다. 남자들이 옷이 오를 때는 소변을 보기 때문에 사타구니의 연한 살갓으로 옷이 제일 먼저 탄다고 한다. 옷의 독성이 사타구니, 겨드랑, 항문 주위 등 연한 피부에 제일 먼저 퍼진다.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그런데 옷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옷은 지저분해야 빨리 낫는다고 생각하여 5일 동안 씻지 않고 지낸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잔디밭에 가서 옷을 모두 다 벗고 햇볕에 일광욕을 하면 빨리 낫는다고 한다.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제 5 장 마무리

지금까지 전북지역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목기와 관련한 어휘를 살펴 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목기 중 제기와 바루 생산과 유통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남원 목기의 제작과 옷칠 과정, 목기 교육기관의 어휘를 살폈다. 제기의 제작 기계, 제기 제작과정, 제작도구의 어휘, 바루 제작과정의 어휘, 옷칠 과정의 어휘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목기를 깎는 기계가 옛날 처음에는 짜구질을 해서 목기를 만들었고, 한 단계 올라간 기계가 목틀, 목기틀이다. 그 다음 일제시대 때 한 사람이 발로 밟아 가면서 목기를 깎는 기계 죽틀이 생겼다. 그 다음에 목기를 깎는 수요가 많아 물레방아의 원동력을 이용한 목기 기계가 발명되었고, 현재는 전기를 이용한 기계를 사용한다.

2) 목기 제작 과정은 먼저 원목 채취이다. 원목은 원목 안의 수분이 최소화되는 가을과 겨울 사이에 벌채 작업을 한 원목을 사용해야 한다. 제일 처음에 원목을 절단해야 한다. 토막내기는 원목을 푼방푼방 잘른 것이라 하여 절동이라 한다. 절동한 다음에 나무 옆을 자르는 것을 근목다듬, 귀도리라고 한다. 초가리, 초벌깎기는 절단한 원목을 용기의 형태를 짐작하여, 끌칼, 가리칼을 사용하여 외형을 깎는다. 재가리, 재벌깎기, 목은가리는 재목의 고르지 않은 면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으로 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요소를 선별하면서 완벽한 형태의 목기로 만드는 과정으로 백기를 만든 것이다. 재가리가 끝나면 5~7 회를 반복하여 칠을 한다. 초칠, 재벌칠, 중칠, 상매칠을 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3) 제기 그릇이 옛날에는 32개, 42개이었는데 42개의 제기를 접제기, 32개의 제기를 홀제기라 했다. 제기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42개는 너무 많고, 32개는 너무 적어서, 지금은 보통 37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기 한 세트의 기본 숫자는 제기접시 22개, 어틀 1개, 떡틀 1개, 탕기 3개, 잔대 3개, 잔 3개, 위패 1개, 향로 1개, 촛대 1쌍(2개)으로 37개이다. 여기에 추가로 10개를 하여 47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 10개를 추가로 하는 것은 밥그릇세트 2벌(4개), 수저세트 2벌(4개), 퇴주그릇 1개, 간장종지 1개이다.

4) 제기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편틀은 두 개인데 정사각형이고 떡을 담는 그릇이다. 고기틀은 직사각형으로 고기를 담는 그릇이다. 과기는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을 담는 것으로 조금 큰 것으로 4개가 있다. 적틀은 적기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침

개를 부쳐가지고 쪽 놓은 것이다. 작은 접시는 소접시라고 하는데 은행, 대추, 추자(호두), 꽃감과 같이 작은 과일 같은 것을 놓는 것이다.

5) 제기 제작 공구로 가리칼이 있다. 제기 깎는 칼을 통칭해서 가리칼이라고 한다. 초벌깎는 칼을 초가리칼이라고 하고 재벌깎는 칼을 재가리칼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말이 가리칼이다. 가리칼의 종류로는 옥칼, 버든칼, 매칼이 있다. 옥칼은 초가리칼로 칼끝이 옥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목기의 외형을 거칠게 깎는 칼로 초가리 때 사용하는 칼이다. 매칼은 목기의 바닥을 평평하게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칼이다. 매칼은 ‘매끔하다’에서 온 말로 매끔하게 다듬는 칼이란 의미이다. 오비칼은 옷칠할 때 재질의 사포 과정에서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칼이다. ‘오비칼’은 ‘호비칼’의 전북방언이다. 제기를 깎을 때 칼을 고정시키는 것을 ‘칼대’ 또는 ‘칼받침대’라고 한다.

6) 바루는 적당한 양을 담은 밥그릇이란 뜻으로 절에서 부처 또는 승려들이 소지하는 밥그릇이다. 바리, 바리때, 발우라고도 한다. 승려들이 탁발할 때 쓰는 것으로 몇 개를 포갤 수 있어 휴대에 편리하다. 바루를 몇 개 포갤 수 있는가의 숫자에 따라 4합, 5합, 7합, 13합, 15합 등이 있다. 바루 제작 과정에는 ‘절동, 원목다듬, 귀도리, 초가리, 재가리, 옷칠, 사포질’이 있다. 절동은 원목을 필요한 크기로 자르는 것이다. 원목다듬, 귀도리는 원목의 옆 부분을 자르는 것이다. 초가리와 재가리는 바루 형태로 초벌깎기와 재벌깎기를 하는 것이다.

7) 옷칠은 옷나무의 줄기에 상처를 입혀 흘러나오는 수액을 채취한 것이다. 옷칠은 물체에 자유롭게 색깔이나 광택을 주어,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강하고, 열과 약품에도 잘 견디고 접착력도 크며, 물체를 튼튼하게 하여 물체의 보호와 장식의 효과에서 옷에 비길만한 도료를 찾을 수가 없다. 옷나무는 6년생을 기준으로 채취되고 있으며 권장되는 옷나무의 수령은 8 - 10년으로 이 시기에 채취된 옷액이 가장 양질이다. 옷칠을 옷나무에서 채취하는 시기는 6월 초순부터 10월 말까지 입목상태에서 채취한다. 삼복 이전에 채취되는 옷액을 초칠이라고 하며, 삼복 중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시기에 채취되는 옷액을 성칠 또는 성물이라고도 한다. 그 이후에 채취되는 것을 말칠이라 하며 또한 가지내기칠(지칠)이라고도 한다. 옷나무에서 채취한 생칠은 채취 중에 나뭇잎이나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불순물을 여과기에 넣어 걸러낸 것을 정제생칠이라고 한다. 목기의 세부 분야 중 옷칠을 하는 분야를 칠기 또는 칠과라고 하며, 옷칠을 하는 기사를 치사라 한다. 옷칠을 생산하여 파는 것을 칠을 내다고 한다. 목기를 칠하는 데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처음 하는 칠을 초칠이라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칠을 상칠, 상매칠이라 한다. 초칠과 상매칠 사이에 5-6번의 칠하는 과정을 중칠이라 한다.

8) 바루 제작지는 목기로 가장 유명한 남원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70% 이상이 남원 목기이다. 남원목기가 유명한 것은 산내면 신라의 고찰 실상사 승려들이 식기인 바루 제작

과정에서 습득된 높은 기술이 목기제작과 연결되었다. 남원 목기는 가내 수공업 형태로 기술이 전수되던 것을, 1929년 산내초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목공과를 병설하여 공교육기관에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 교육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산내초등학교 병설 목공과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다시 가내 공업의 형태로 기술 전수가 이뤄졌다. 목기 제작 기술의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실감한 산내면과 주변 사람들의 요구로 1952년 전라공업기술학교가 개교되어 일반 중학교 교육과정과 목공과 교육을 병행하였다. 사회 여건의 변화로 1967년에 전라공업기술학교가 산내중학교로 전환되었다. 실상사에서부터 비롯되었던 남원목기의 제작 기술이 가내공업과 공교육기관, 다시 가내공업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지금도 전수되고 있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상오(1997) 천연칠의 매력과 표현 기법, 조형사.
- 김미락(1987) 한국수공과 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대구대학교교육논문집 22.
- 김복태(1995) 한국전통목기의 제작기법에 관한 함지를 중심으로, 동의논총.
- 노태훈(2006) 남원목기의 현대화 작품 연구, 명지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 박용수(1992), 『겨레말갈래큰사전』, 한글문화연구회 출판부.
- 박용수(1995), 『새우리말갈래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종구(1965) 남원의 목기, 신동아 8.
- 이종석(1971)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 이종석(1994) 한국의 전통 공예, 열화당.
- 이훈중(1992),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 임진아(2002) 남원제기 연구, 전북대 대학원.
- 최공호(1996) 한국 현대 공예사의 이해, 도서출판 재원.
- 최상수(1980) 목기, 동아악보 138.
- 추원교(2003) 우리공예문화, 도서출판 예경.
- 한홍렬(1986) 남원목기공업에 대한 소고, 남원목기를 중심으로, 청주사대 논문집 18.
- 한홍렬(2003) 한국전통 수공예의 육성과 방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2.

부록

03 목기 조사어휘(서정섭)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판 류1	상세판 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발	발음 정보	표시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티 경도 사건	말티 경도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재여부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검제기	명	명	숫자가 42개인 제기.	제기는 보통 옛날에는 32개, 42개 그랬어, 검제기 , {검제기}. 그랬거든. 42개는 {검제기}, 32개는 출제기 그랬거든.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고기들	명	명	제사의 제수 중 고기를 놓기 위한 직사각형의 나무 그릇.	그리고 직사각형은 {고기들이라고} 그래, 조개 큰 것이 4개 있는데 고기는 사고, 배 이런 과일을 담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과기라고 그러지.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 루				국서	명	명	삼일. 목기에 흙이 있을 때 매우는 작업.	조치를 하고 두번째 순서가 인자 {국서라고} 그래. 칠을 때운 디를 파가지고 칠하여, 구버진 것을 편다고 그래.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과기	명	명	제사의 제수 중 과일을 놓기 위한 나무 그릇.	그리고 직사각형은 고기들이라고 그래, 조개 큰 것이 4개 있는데 고기는 사고, 배 이런 과일을 담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과기라고} 그러지.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 루			원목 다듬기	귀도리	명	명	근목다듬. 모서리 다듬기. 원목을 절제한 후 모서리 하기 좋은 8각 정도 모서리 각지게 자름.	절제한 다음에 나무 옆을 자르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근목 다듬}, {근목 다듬이라고} 해. 원목을 이런 형태로 다듬는 것을 귀도리라고 해. 귀도리.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출칠	도구			귀발자국	명	명	돌바 자국	절제한 다음에 나무 옆을 자르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근목 다듬}, {근목 다듬이라고} 해. 원목을 이런 형태로 다듬는 것을 귀도리라고 해. 귀도리.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 루				근목다듬	명	명	원목을 절제한 후 모서리 하기 좋은 나무의 옆을 8각 정도로 각지게 자름.	절제한 다음에 나무 옆을 자르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근목 다듬}, {근목 다듬이라고} 해. 원목을 이런 형태로 다듬는 것을 귀도리라고 해. 귀도리.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기 되다		구	-개 되다'의 전복방언.	왜 안 찾았나 {허기 되면은} 그 때는움을, 훔칠하는 것을 거의다 잊어먹어 버렸어. 외할아버지도 해갖고는 사탕한테 안 옮으니깐은 스님들이 안 사.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깎는 거	구	구	목기를 달리 이르는 말.	줄황 다리 바로 건너에 살았어. 그분도 {깎는 거매} 기술자였어. 잘쳤어.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니도뿌리다	동	동	놓아두다'의 전복방언.	그냥 그대로 6개월 {니도뿌려}, 그러면 잘 맴란.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진흥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나물 그럭	명	명	나물그릇의 전복방언.	그 당에 인자 {나물 그럭이} 있어, 약간 파민 것. 송방한 거, 그거야 세 개. 고것이 한 15센티 정도 돼. 그 규격이.		김을생 (1996)	정문연 (1996)	0	0	0

03 목기 조사어휘(서정섭)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원발	발음 정보	표시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전 등재여부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제작					낭창낭창		부	없어서 끊어지지 않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	해리를 {낭창낭창하게} 깎아야 돼요. 어디서 안 팔아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김을생 (1996)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를				내복치다		불	내동령이 치다.	바루를 {내복치면} 양가지잖아?		김을생 (1996)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넘겨주다	병기주다	병기조	불	넘겨주다의 전복방언.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자기 상처가 생기면 또 {병기조(넘겨줘)}.		김을생 (1996)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를				논에 안들다		구	일정한 수준에 오르지 않아 충족하지 않다.	사림에 따라서는 갈채지도 잘 못해서 {논에 안들} 경우도 있어.		김을생 (1996)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를				논절		평	원목을 판자로 켜. 원목이 누워 있다고 하면 논절을 판자로 한다.	보통 이런 나무는 선절이라고 하거든. 똑 똑 썰어. 판자로 켜는 것은 {논절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거야(논절)이 안 잘라지고 좋은 거야.		김을생 (1996)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제작				다들다	다들다		불	<표준> 필요 없는 부분을 떼고 깎아 쓸모 있게 만든다.	그래 개세를 하고 깎는. 뱉기를 깎는 과거 있고. 뱉기를 다듬는 과거 있고. 칠을 만드는 과거 있었는디.		김을생 (1996)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도반	도반		평	<표준> 함께 도를 닦는 뽕.	대개는 4월, 5월인데 아까 10월이네 15월이네. 또는 것은 스님들이 산중에 들어갈 경위에, 공부호러 갈 때 살림은 한 개도 안 가져가고 하루 거 하나만 가져가면은 거기에 뽕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도반이} 왔다가 기에 뽕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한 개씩 하고.		김을생 (1996)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뽕적거리다	뽕적거리다		불	물간들을 이리저리 들추며 뒤지다.	뽕적은. 한 뽕 두뽕 둘러싼 그뽕개 하는 거 이 뽕인이라. 그렇게 해서 나무를 한 상개 뽕마다 {뽕적거리}. 뽕고루 뽕고루 말리게 뽕 말리지. 그렇게 하는 뽕식이 좋은 뽕식이다. 지금은 뽕바가 없고 그렇게 누가 그 뽕개 불러고 뽕가?		김을생 (1996)	0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디개		점사	뽕이 있는 것을 매우는 작업. 뽕 {순진디까} 하는 것은 선절이고, 인자 고거는 6월부터 해서, 지금썰(8월), 아니 추석 때 마갈 해. 뽕나무를 세워놓고 칠을 내.	그러면 여기저기 뽕을 내서 {순진디까} 하는 것은 선절이고, 인자 고거는 6월부터 해서, 지금썰(8월), 아니 추석 때 마갈 해. 뽕나무를 세워놓고 칠을 내.		김을생 (1996)		0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를				따개		평	바루 두강.	바루에 {따개}가 나중에 생겼어.		김을생 (1996)		0	0	0	0
진통공매	목공예	목기	제작					뽕절		평	뽕이에서 뽕이 있는 것을 매우는 작업. 뽕로 깎아내고 곡선도로 굽어 내려 뽕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뽕절은) 저쪽에서 옹고 여기는 사리를 옹고. 뽕을 배합하여 뽕을 매우고, 또 뽕과 뽕을 배합하여 그 위에 바르며 마른 후에 사포로 문지른다.		김을생 (1996)		0	0	0	0

03 목기 조사어휘(서정섭)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원발	발음 정보	표시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원정보1	출원정보2	별도 경도 시간	별도 장도 음정	표준국어사전 등재여부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목기		목기	목기	목기	목	<표준> 나무로 만든 그릇. '나무 그릇'으로 순화. 목기는 원시 시대부터 쓰였으며, 지금도 농가에서 물을 푸는 두레박, 찻을 아는 이념박,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 따위에 쓰이고 있다. 그 종류에는 목반, 항지, 귀항지, 찬합, 구절판 등이 있으며, 시찰에서 승려들이 공양할 때 쓰는 발수도 여기에 속한다.			김을생			0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교육		목기 학교		목기 학교	목기 학교	목기 학교	목	목기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지칭하는 전복 명언.	전에 문화재청 직원이 왔더라고. 작년 가을에 대한민국에 {목기 학교}가 있었던 것이 없어.		김을생			0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교육		목기과		목기과	목기과	목기과	목	전라공업기술학교에서 목기 기술을 교육하는 학교.	그 당시 1회 졸업생이 한 18명 되고, 이번 해 중학교 가서 졸업장 영단을 18회까지 보내니까, {목기과} 360명도 안 되더라고. 내가 졸업장 영단도 문화재청에 적어 보냈거든.		김을생		0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목기를 만들다		목기를 만들다	목기를 만들다	목	목	목기를 제작하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없었지만은 학교도 조개 낙낙했어. 그래서 그분들은 {목기}를 만들라고, 기술을 배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학을 했었거든.		김을생		0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루	목기사		목기사	목기사	목기사	목	목기를 짚는 기사	목기 짚는 사람을 {목기사라고} 해.		김을생			0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목기를		목기를	목기를	목기특	목	목.	목기를 따듬고 그려야 해니까,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목틀이지. 고적이 시초에 있지 {목기틀이라고} 그래.		김을생		0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바루	목바루		목바루	목바루	목바루	목	나무로 만든 바루.	또 성철 큰 스님이라고 스님이 {목바루는} 목지 마라 그래요. 목바루는 나무를 얹어 놓는다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로다라고 말한 큰 스님이 영명을 해부했어. 그래서 거의 안 팔렸어.		김을생		0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루	목줄		목줄	목줄	목줄	목	목기틀을 당기기 위해 사용하는 줄. 목기틀을 줄어 목줄이라 했다. 예전에는 단나무, 피나무 잔질로 만들었다.	피나무 껍막으로 {목줄}을 만들었어요.		김을생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목틀		목틀	목틀	목	목	목기를 초창기 목기 제작 기계. 돌이 손으로 잡아 당겨서 목기를 짚는 기계이다.	천에는 우리 조상들이 한 기계는 {목틀이라고} 해가지고 돌아 췌야 땀겨.		김을생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목다		목다	목다	목	목	목기가 꺾이다. '목다'의 전복명언.	그런게 그걸 해 보면 첼로, 첼로로 잘 {목다}는 그 위치에서 목 머물러지거든. 아, 요미는 맨드라야 되잖구나. 작량적으로 말아, 안지.		김을생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루	목가리		목가리	목가리	목가리	목	목가리, 재벌짜기. L402차 음권이 된 초갈리고 인자 손으로 디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목기를 다시 음도에 적합하게 짚는 일이지. 재벌짜기는 목공의 오랜 경험과 영감으로 정밀하게 짚는다.	그래 재가리는 {목은가리형} 때는 말리가 지고 인자 손으로 디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날 기물자가 많이 있는데 재물도 수작업을 하고, 재가리도 수작업을 하고 그런게 능률이 안 올라.		김을생		0			

03 목기 조사어휘(서정섭)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발	발음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단 경도 시간	별단 경도 음성	표준국어 사전 음성		
진통공 매	목기에	목기	제작	바루			발우, 바리때	바루		명	바리때, 바루, 발우, 승려들이 탁발할 때 쓰는 것으로 뿔 개를 포갠 수 있어 휴대에 편리하다. 4할, 5할, 7할, 13할, 15할 등이 있다. <표준>	원부 단순한 목기는 그냥 기계로 하고, 목기 제기같은 것은 단순하잖아, 그런 것은 그냥 기계로 하고, 아까 {바루같은} 것은 어렴잖아? {바루같이} 어려운 것은 손으로 해야야 하고.			0	0				
진통공 매	목기에	목기	제작	바루			바루때	바루때		명	바루, 바리때, 승려들이 탁발할 때 쓰는 것으로 뿔 개를 포갠 수 있어 휴대에 편리하다. 4할, 5할, 7할, 13할, 15할 등이 있다.	그러면 {바루때} 같은 거는 뿔을 담구니까, 뿔을 담구고 그러니까 선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해야돼.			0					
진통공 매	목기에	목기	제작	제기			밥그릇	밥그릇		명	밥그릇의 전복방인.	근개 인자, 목기는 뽕나무를 갖다가 일단 저용에 카리를 해, 행(형)을 접어가지고 초가리라고 초가리를 해, 이를테면 {밥그릇} 만들 것 같으면 밥그릇 모양으로 떠놔, 모양을 만들어 놔디니까.			0	0				
진통공 매	목기에	목기					밥이 떨어지다	밥이 떨어지다	바비 따라 지다	구	수업이 없어진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 사람들이 켜다보면 기술을 안 갈쳐줄러고 그래, 자기 {밥이 떨어지니까}.				0				
진통공 매	목기에	목기	제작	제기, 바루			백기(白器)	백기	백끼	명	백칠, 옷칠을 하기 전의 목기, 칠하기 전의 완성된 목기를 백칠(白漆)이라고도 부른다. 나무의 바탕을 간직하고 있어 하얀 색깔을 보이기 때문에 하얀 그곳이란 의미의 한자어이다.	그래 개색을 하고 깎는, {백기들} 깎는 과정 있고, 목기를 다듬는 과정 있고, 칠을 만드는 과정 있었는디 // 여기 중학교, 목기가 불꽃고 중학교 선장했던, 목기 가리하느디 관선생이 있었어, 그 사람이 목공과 선생하고, 저 중학교 박선생이라고 있어, 박선생하고 그 분이 목공과에 기술자라, {백기} 깎는 기술자였어.				0				
진통공 매	목기에	목기	지명				백사골	백사골	백사골	명	진라북도 남원시 신내면에 있는 지리산의 줄기의 계곡, 통틀어라고도 한다. 지리산 반야봉에서 반석(半石)까지 산의 북사면을 흘러내리는 길이 14km의 골짜기를 말한다. 지리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여러 골짜기들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뛰어난 골짜기의 하나로 꼽힌다. 전구간이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이 계곡에는 100여 명의 인원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넓은 너럭바위가 곳곳에 있고, 10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와 소(澗)가 줄을 잇는다.	그 당시만 해도 인자, 6.25 사변이니까, {백사골} 쪽은 전당이 있었어, 전당이 있어 가지고 아조 학교를 방해도 피해 디디고 그 있었어.				0				
진통공 매	목기에	목기	제작	제기, 바루			버튼칼	버튼칼		명	칼 끝의 각도가 밖으로 벌어 있는 칼.	응, 있는디 옥칼이 있고, {버튼칼이} 있고, 인자 매달이 있고, // 칼이 밖으로 벌었다고 해서 {버튼칼이라고} 그래.			0	0				
진통공 매	목기에	목기	제작	제기, 바루			벌다	벌다	벌따	명	목기 공구 중 칼의 날이 밖으로 벌다.	칼이 밖으로 {벌었나} 안으로 옥었나?				0				
진통공 매	목기에	목기					보통고시	보통고시		명	<표준> 예전에 실시하던 주사급 공무원의 임용 자격 고시.	그래갖고 그때 {보통고시} 합격을 해서 진 주사범학교로 전근이 됐었어, 인자 시골에 이런 학교에 계시다가, 보통고시를 합격한 개 전 주사범으로 발탁이 돼서 기셨어.				0				

03 목기 조사어휘(서정성)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발	발음정보	표시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단경도시간	별단경도음성	표준국어사전음성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보안	보화		명	보안의 질못.	하양,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크히 {부회(보안)} 하고 그래. 못 짝개 호고, 못 치디보 게 호고 그래. 우리는 대개 열지만은.	보안을 잘못 발음한 것임.			0	0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제작	바루		별	별		명	못이나 그릇 따위가 두 개 또는 여러 개 모여 갖추는 덩어리를 세는 단위.<표준>	도 잔도 두벌 여준디 {한벌} 더 여주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점시가 더 있을 수가 있어. 점시가 보통 22-3개 되는데 점제기가 되면 한 서너개 더 호고. // 원칙은 경제적으로 풀리면 딱딱 규칙을 맞춰서 {한벌} {두벌} 찾아야 호지만 그릴게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대개 고로케 해 왔어. 40년간.	별의 전복방언.			0	0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부교강		명	예전의 교육제도. 교장 밑의 직책.	그때는 신내중학교가 {부교강} 제도가 있어 가지고 교장이라고 그랬었는디, 인형서 애기 신내까지 자전거 통학을 하면서 법전 책을 자전거 현들애다가 묶어갖고 맹랑서 봤다고 그래.				0	0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부침개	부침개		명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반디떡, 지나, 누름작, 전병(煎餅) 따위의 음식. <표준>	그당애 작들이라고 그러지. 작기이지. 일반적으로 {부침개} 부쳐가지고 꼭 놓는 것이 제.				0	0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별	별		명	분포기의 전복방언. 맛.	그런 것은 각자의 개성을 보이는 것이지, 어떻게 볼 있게 맨드나 그 말이라. 어떻게 {별}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형성되니까 그러는 것이제.				0	0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시당	시당		구	조선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 <표준> 집・사우09(廟宇).<표준>	집을 지어갖고 큰 강실, {시당길은} 대가 되면 강실, 그걸 의식을 해서 표시할라고 만들어 놓고 그랬는디, 그 뉘를 흐다본게 규정을 놓고 흐다본게도 그 뉘이 빠지고 큰 난리라.				0	0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사리		명	거의 완성된 목기를 최종 검사하여 작은 흠이 있는 것을 매우는 작업.	맨질은 자척에서 호고 여기는 {사리들} 흐는 거요. 아주 작은 흠을 매우는 것이요.	'사리'라고 하는데 '삼입'의 외전일 가능성이 있다.			0	0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사포(沙布/秒布)		명	금강사(金剛沙)나 유리 가루, 구석(硯石) 따위의 모드러운 가루를 발라 붙인 천이나 종이. 쇠붙이의 녹을 닦거나 물체의 거칠음을 반들반들하게 문지르는 데에 쓴다. 마연지. 사지(沙紙)·애머리페이파·연마지·연마포지.					0	0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루		사포질	사포질		명	<표준> 까칠까칠한 물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려고 사포로 문지르는 일. <표준>.	보통 칠은 한 6번에 끝나거든. {사포질은} 매번 해. 매번, 칠은다매에 또 {사포질} 호고, 또 호고 그래. 반복해서 해. 반복해서 6번 해. 요 응그에 또 칠을 해, 그러고 또 {사포질} 해, 그래야 칠이 붙어.				0	0	
진행문해	목공예	목기	제작	바루			사합		명	4할, 바루의 가장 일반형으로 그릇 4개의 한 발.	꽤는 사람이 추라가지고, 몇 센티 몇 센티 추라가지고 {사합} 하고, 아까 그러 것 {10할 등}을 하고 그래, 그러게 돼 있어.				0	0	

03 목기 조사어휘(서정섭)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원발	발음 정보	표시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단 경도 시간	표준국어 사전 을 제어부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교육				신내초등학교	신내국민학교		명	1922년 전라북도 남원시 신내면 대정리에 개교한 공립초등학교. 일제 강점기 때 학교 정규 과정 졸업 후 2년 과정의 목기과를 병 설로 설치하여 목기 기술을 교육하였다.	해정 때는 해방될 때까지만 {신내국민학교 에서} 목공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안 된 줄로 알고 있어.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 루				상암	사립	명	목기의 몸을 매우기 위한 작업.	꼭서른 다음에는 {삼암을} 해야 해. 사도 업체? 혹은 매우고, 그 당에 깎아내고 삼 기 칠을 해. 그 다음에 금개 만들어가고, 두번째 칠을 해.	삼암을 사비라고 잘못 발음하기도 한다.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옻칠				상매칠		명	여러 번의 옻칠 중 마지막 단계의 칠하기 작업. 상매칠의 작업은 정결해야 함으로 물 가에서 작업을 한다.	{상매칠은} 마지막 칠이다. 티도 없게 깨끗 하게 해야 돼. 그런게 물가에서 해.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옻칠				상살이	상사리	명	절장. 인제나 습도는 80%. 온도는 30도를 유지해야 한다.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상좌		상좌		명	<표준> 『불교』 스승의 대를 이을 여러 승 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상좌 이(上座).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자기 {상 좌} 생기면 또 냉기조(냉거좌).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옻칠				상칠(上漆)		명	상매칠.	{상매칠은} 마지막 칠이다. 티도 없게 깨끗 하게 해야 돼. 그런게 물가에서 해. 상매칠 은 제일 좋은 칠이제. {상칠이지}.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옻칠				정물	정물	명	6년생 이상의 못나무의 몸에서 채취된 옻 액을 걸러서 이물질을 제거한 원액. 상물은 그 상산시기에 따라 초칠, 상칠, 열칠, 지칠 등 화칠로 구분한다.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옻칠		정칠		정칠		명	불에 담이지 아니한 옻칠. <표준> 못나무 에서 직접 채취한 정칠은 붉은 색을 띤다. 못나무 표피에 상처를 내면 상처에서 나오 는 유괴박석의 유액상 수지. 원액에서 불순 물을 제거한 칠이다.	이 마친 칠은 화칠밖에 못 해. 화칠은 불에 구르고 내는 칠을 화칠이라고 흥거든. 자그 강원도 칠은 {생칠이라고}. {생칠}. {생 칠이} 때문에 거 칠이 좋아.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 루		선별		선별		명	<표준> 가려서 따로 나눈. 누선분02(選分).	그렇지. {선별하는} 곳이지. 좋은 것 싸고, 보내는 것이지.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 루		선칠		선칠		명	원목을 제기 크기로 동방방 자를. 원목이 서 있게 자른다고 하여 선칠이라고 한다.	표종 이런 나무는 {선칠이라고} 하거던. 목 쪽 쪽 끊어. 판자로 커는 것은 눈칠이라고 하고, 그런디 그거이(눈칠)이 안 갈라지고 좋은 거라.		김을생		0	
진통공 매	목공예	목기	지명					소년대		명	전라북도 남원시 신내면 대정리의 자연마 를 중 한 마을. 소년대는 옛날 전원이 있었 을 때 소년군의 진지였다는 말이 전해오는 마을이다.	그분들이 {소년대} 서정렬째라고 하는 부 이 있고 했는데 다 죽었어. 양기택(배드)가 다 죽었어.		김을생		0	

03 목기 조사어휘(서정섭)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미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단 정보 사진	표준국어 문법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제작	제기				소점시	제기 점시 중 크기가 작아 작은 과일용 점시.	또 작은 게는 {소점시} 그렇게 말하기도, 큰 것같은 게, 찌꺼기 같은 과일같은 게, 대추, 은행, 추자, 꽃감같은 거 놓는 거여.		김을생		0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제작	옥칠				쇠꼬리뿔	소 꼬리의 뿔로 만든 뿔. 초벌칠할 때 쓰며 거칠게 칠해진다.	초칠할 때는 {쇠꼬리뿔으로} 칠해.		김을생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제작					시킴튀튀하다		그래 인자 화칠은 도료층으로서는 안 좋고, {시킴튀튀해서} 안 좋고, 단 고걸 고기 육지를 써서 옥칠이라고 해. 옥칠, 기념 칠하기도 하고 옥칠이라고도 해. 화칠을 옥칠이라고 해. 고걸 뚫어.		김을생	0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어깨 너머	검은 빛이 돌면서 흐릿하고 깨끗하지 않다. 남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듣거나 함 <표준>.	하어, 없어, 없어. 못 맨드라. 안 본게로. 그 래서 인자 우리가 유일하게 만드는 공정인디. 인자 그래도 고 거이 또 {어깨 너머로} 보고 흔 사람들이 남원도 조개 있다고 호미 만. 그란디 내가 본개 절은 못 맨드라. 절은 못 맨들고.		김을생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에박	3년정 나무를 갖다가 {에박} 크면은 이만 썩 해(썩도록 크기 정도) 고걸 갖다 그냥 생 칠을 널라고 흥만 안 내지고, 고걸 다벌로 해서 집에서 불로 지져, 나무를 돌려.			김을생	0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엷다	깨진기여. 인자 재가리헐라고 선풍헐라고 후려서 갖고 나오면은 깨진기 많이 나와, 깨진거는 불에 {엷고}, 버리고 그리고 나서 재가리를 지는 거라. 재가리를.			김을생	0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오그명명하다	오그라진 상태이다.	칼대 고 거는 이렇게 흐느디. (기계가) 돌아 가니까 빔 돌아가니까 (원손을 밑에 받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서) 이게(나무를 끼운 기계가) 오리(오른 쪽으로) 돌아가니까 {오그명명한다} 요것을 땅개 자얀하 머나 파이 제.		김을생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제작	제기, 비루				오비칼	옥칠할 때 재칠의 사포 과정에서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칼. '호비칼'의 전복 명언.	{오비칼로} 티를 제거해.		김을생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옥다	인쪽으로 조금 오그라져 있다.<표준>	파이제. 그것도 대개 엉터리 해갖고 인자 그것을 갖다가 해부면은 칼을 조개 속이아 되겠다. {옥다야} 되겠다. 그거는 직감적으로 다 아는 거라.		김을생	0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제작	제기, 비루				옥칼	초가리칼. 칼끝이 옥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목기의 외형을 거칠게 깎는 초가리칼 때 사용하는 칼이다.	초가리칼이 {옥칼이라}. 칼끝이 옥아디고 해서 옥칼이라고 쓴단 말이여. // 응, 있느디 {옥칼이} 있고, 버드칼이 있고, 인자 때 칼이 있고.		김을생		0	
진통공매	목공매	목기						음방하다	둥근모양으로 파여 있다의 전복명언.	그 당에 인자 나뭇 그럭이 있어, 약간 파인 것. {음방한} 거. 그거이 세 개. 고것이 한 15센디 정도 돼. 그 규격이.		김을생		0	

03 목기 조사어휘(서정섭)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판 류1	상세판 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발	발음 정보	표시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단 경도 시간	표준국어 사전 등 재여부
진행공 매	목기에	제작	제기, 바 루					음식	명	명	초가리방울이에 제기 규격 표시부분에 부 착한 쇠붙이.	방울이에 {음식}이 달려 있어서 표시를 해줘요.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의별	의발	명	명	가서(義絶)와 바리때를 아울러 이르는 말. <표준>.	바루는 의사, {의발가사는} 전수를 해, 바 루때는. 금개 그만치 소중하게 하고 있다가 자기 성취한디 방겨준단 말이여, 그렇게 인 사. 그 걸 사면은 칠해가지고 전말칠 때를 이제.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의사	의사	명	명	웃상지, <표준>.	바루는 {의사}, 의발가사는 전수를 해, 바 루때는. 금개 그만치 소중하게 하고 있다가 자기 성취한디 방겨준단 말이여, 그렇게 인 사. 그 걸 사면은 칠해가지고 전말칠 때를 이제.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이기	명	명	이것'의 전복방언.	그래갖고 몇 년 사정되다가 내가 인지 준옥 채한테 사사를 묻어갖고 은 거제. 내가 은 게로 처음에는 {이기} 일반 사람들은 자기 혹인가 외학찰인가 잘 몰라.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이쪽자족	이쪽자족	부	부	이쪽자족의 전복방언.	그때 전체 학년이 18명, 30명 {이쪽자족인 개} 한 50명 미만이었어.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꽃칠					인모뎃	명	명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뎃. 가격이 비싸 며 재벌칠할 때 사용한다. 칠이 고르고 정 밀하게 칠해진다.	{인모뎃은} 재벌칠에, 종칠, 상칠에 쓴다.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제기				잔	잔	명	명	차나 커피 따위의 음료를 따라 마시는 데 쓰는 작은 그릇이나, 특별히 제사에서 술을 따르기 위한 목기.	또 {잔도} 두벌 여준다 한볼 더 여주지 그 런 경우가 있고, 또 덩시가 더 있을 수가 있 어. 덩시가 보통 22-3개 되는데 잔제기가 되면 한 서너개 더 얹고.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잔당	잔당	명	명	쳐 없애고 남은 무리. 대부분이 패망하고 조금 남아 있는 무리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잔도02(殘徒)·여당02(餘黨)· 여류04(餘類).<표준>	그 당시만 해도 인자, 6.25 사변이니까, 방 사할 쪽은 {잔당이} 있었어, 잔당이 있어가 지고 아조 학교를 밤에도 피해 다니고 그랬 어.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제기				잔발칠	잔발칠	명	명	제사에서 술잔 밑을 받치는 제기.	그리고 잔하고 {잔발칠이} 한 두 개 차이가 나. 그래서 10개 차이가 나.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장난을 하다		구	지못개 못된 짓을 하다. <표준>.	그런디 이런 경우에, 하연(전수를 하연) {장난을 하니까}. 장난을 하니까 옆은 그걸 {이술을} 안 갈채주잖아?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제기, 바 루					제가리	명	명	재벌까기. 목은가리. 2차 음권이 된 초갈이 목기를 다시 용도에 적합하게 깎는 말이다.	그러면 {제가리는} 아직 기계로 못해. 아직 재벌까기는 목공의 오랜 경험과 영감으로 정밀하게 깎는다.				0	
진행공 매	목기에	목기	제기, 바 루					제가리치다	동	동	목기를 깎을 때 정밀하게 깎는 단계이다	{제갈이칠} 때 기술이 필요해.				0	

03 목기 조사어휘(서정섭)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판 류1	상세판 류2	원표제어 표준어	유형명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도 경도 시간	표준국어 사전 음성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루		도구		재갈이칼	목기의 바닥을 평평하게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칼. 재가리칼, 마무리칼.	{재갈이칼을} 매칼이라고 혼디 바닥을 매 뜸호게 올 때, 마무리를 때 쓰는 칼이어.		김을생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루				재별작기	제가리, 목은가리, 음간한 재목의 고르지 않은 면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 공정. 2차 가공이 된 조각이 목기를 다시 용도에 적합한하게 깎는 일이다. 재별작기는 목공의 오랜 경험과 영감으로 정밀하게 깎는다.	그래 재가리는, 목은가리할 때는 말리가지고 인자 손으로 다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날 기술자가 많이 있는데 저음도 수작업을 하고, 제가리도 수작업을 하고 그렇게 능률이 안 올라, 재가리를 {재별작기라고} 해.		김을생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루		도구		재별방울이	제가리할 때 제기의 크기에 따라 교체하는 방울이. 초가리 때는 응석을 박아서 깎으므로 제기에 상처가 생긴다. 그러나 재가리할 때는 삼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응석이 없는 재별방울을 사용한다.	제가리는 상처가 안 나아 된개 {재별방울이들} 써요.		김을생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울칠				재칠	사포로 닦은 목기에 다시 하는 칠.	칠하는 것은 초칠, 조별칠을 하고 {재칠을} 7~8번 해.		김을생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작을	작기	작을 <표준>	그당에 작을이라고 그리지. {작기이지}, 일반적으로 부쳐개 부쳐가지고 속 놓는 것이 제.		김을생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작을	작을	제사 때 산적을 담는 그릇. 못식나 사기 또는 나무로 만들며, 직사각형 모양에 보이는 것이 많이 많았다. <작과기>·<작기05(笊器)>·<작제>	그당에 {작을이라고} 그러지. 작기이지. 일반적으로 부쳐개 부쳐가지고 속 놓는 것이 제.		김을생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루				전대	바루 놓는 것을 {전대}, 바루보라고 했어. 전대가 있고, 그 당에 팔판이 있어. 그러고 그것을 바루보라고 그래, 바루 위에 덮는 것을 수건으로 사용하더라고.			김을생	0		
전통공예	목공예	교육						전라공암기술학교	전라북도 남원시 신내면 백일리에 위치했던 중학교. 1952년 9월 1일 공립 전라공암기술학교가 개교되었으며, 1966년 12월 13일 전라공암기술학교를 인수, 1967년 3월 1일 공립 신내중학교로 개교하였다. 중학교 정규 학업과 목기 기술을 병행하여 교육하였다.	1952년도에 {전라공암기술학교} 목기학과를 하나씨가 설립했거든. 만들어, //{전라공암기술학교 목공과는} 따로 하는 것을 이걸로 했어.		김을생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바루				절동	토막내기, 절단, 원목을 목기의 종류에 따라 여섯자 길이와 재목으로 자름. 절단은 재취한 원목을 만들고자 하는 기술에 어울리게 자르는 작업이다.	그러면 원목 나무를 저렇게 자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절동}. 끝을 절, 나무 등.		김을생	0	0	
전통공예	목공예	목기	제작	제기			절시	절시	운동가 낚고 낚작한 그릇. 반치어나 과일먹 때 끼워를 넣는 데 쓴다.<표준>	또 잔도 두벌 어준디 한볼 더 어주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절시가} 더 있을 수가 있어. {절시가} 보틀 22-3개 되는디 절제기가 되면 한 서너개 더 열고.		김을생	0	0	

찾 아 보 기



가리밥	25, 58
가리칼	33, 68
고기들	26
곡서	83
귀도리	33, 76
귀발자국	87
깎기	25
끝칼	60



눈질	30, 34
눈질칼	68



마무리칼	68
매칼	34, 68
목공예	16
목기	16
목기가 트다	79
목기사	89
목줄	28
목틀	27, 56
목은가리	28



바루	71
바루때	30
백기	25, 62
백일리	25
버든칼	33, 68



4합	30, 72
산내면	79
산내중학교	44, 53
산내초등학교	43, 90
상매칠	83
상살이	89
상칠	83
서금융	45
서진암	23
선질	30, 34
선질칼	68
쇠꼬리뿔	83
실상사	16



양은그릇	25
어틀	63
오비칼	69
5합	30, 72
옥칼	33, 68
웃으르다	81
웃칠	63
원목 절단	25
음건	26, 61
응석	34
인모뿔	87



재가리	28, 77
재가리칼	34
재벌깎기	25, 62
재벌방울이	77
재벌이방울이	34

채벌칠	25
적틀	26
전라공업기술학교	28, 45, 52, 91
절동	32, 74
접시	26
접제기	26
정제칠	82
조종혼다	34
족딱기	27
족작기	27
족틀	27, 56
지방틀	68
짜구질	27, 56

大

초가리	28, 76
초가리방울이	34, 76
초벌	
초벌 깎기	25
초벌깎기	25, 58, 60
초벌칠	25, 63, 83
칠거르다	86
칠내다	89

칠사	89
칠장	89
칠지	86
칠통	86

ㄱ

칼대	70
----	----

ㅁ

탕기	26
틀칸	33, 79

ㅂ

편틀	26
----	----

ㅎ

향로	68
흘제기	26
화칠	81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서정섭(서남대학교)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발 행 인 권 재 일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 쇄 일 2009년 11월 27일

발 행 일 2009년 11월 30일

인 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